

1999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行政管理局

日 時 1999年 12月 1日(水) 10時05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날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감사일망정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업무

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吳炳漢 行政管理局長이 대표로 선서를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行政管理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總務課長 李炳漢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 券 課 長 黃義振

○委員長 李憲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吳炳漢 行政管理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먼저 李炳滿 總務課長입니다.

金周會 企劃豫算課長입니다.

李秀傑 文化振興課長입니다.

趙秀完 民願奉仕課長입니다.

黃義振 旅券課長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委員長 李憲九 이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안녕하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정기회에 처음으로 희망의 새천년을 30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추진현황과 새천년 첫해에 실행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行政管理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계획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李憲九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吳炳漢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안녕하세요?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많은 업무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제일 첫장을 봐주시겠습니까? 30쪽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종로구 관용차량 현황이 나와있죠? 종로구 관용차량 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 총계를 보면 135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135대입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李東奎委員 맞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금방 통계를 내보니까 1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혹시 1대 팔아가지고 직원들 퇴직한 것 아니에요? 1대가 없어졌어요. 찾아보세요. 종로구 차량 총 보유대수가 136대인데 어떻게 135대로 되어 있네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난번에 승인1동 차량이 지금

○李東奎委員 현재 1대가 차이가 나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1대 대수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 조치하기 위해서 1대를

○李東奎委員 매각 조치하기 위해서 1대를 뺐다는 겁니까? 그러면 뺐으면 뺐다고 기록을 해주셔야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135대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틀림없이 135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틀림없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제가 통계에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135대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제가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李東奎委員**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화물용칸을 보세요. 화물용 소형차량이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형차량이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35대가 되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더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이런 것 기록이 안되어 있어도 금방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얘깁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차량 1대도 금방, 이것 팔아가지고 직원들 회식한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는 136대가 맞는데

○**李東奎委員** 밤새도록 세어봤어요. 135대가 맞나. 그런데 136대가 맞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135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 행정차량이 소형차량이 있는데 동청사에 19대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14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李東奎委員** 아니죠. 19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뺐으면 빼는대로 하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19대가 아니고 18대인데 거기에 총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18대면 왜 18대로 안해놓고 19대로 해놨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잘못 기록했습니까? 35쪽 동사무소가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19대로 되어 있는데 화물용 소형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시인을 해주셔

야 되는데 끝까지 1대를 빼야 되는데 1대를 안 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말씀대로 이해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승인1동 차량을 1대를 현재 세종로사직동을 줘서 사직동 차량이 폐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끝까지 기록을 잘못했다는 소리는 우리 국장님께서 안 하시는군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기록이 잘못 되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35쪽에 동사무소 차량 19대 중에서 지금 10년 정도된 차량이 4대나 되네요. 최초등록일이 '89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0년 된 차량이 4대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차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내년도에 5대를 대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내년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대차계획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東奎委員**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여드리는 자료를

○**李東奎委員** 자산취득비에다 갖다놨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안 나오죠. 행정차량 구매. 그러면 이게 차량대수는 안 나와있고, 아니 대폐차로 해가지고 5대면 1,000만원이면 돼요? 1대당 1,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00년도에 대차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고 현재 그 차량들이 노후화가 된 차량들이 굴러다니면서 이상은 없습니까?

혹시 차량 관리하시는 분,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총무과장님! 차량 이상이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 화물차는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21대를 동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21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차량 마모정도가 심한 차를 7대씩 저희가 순차적으로 대폐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3차년도 대폐차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를 대폐차를 못했는데 전에 2개 동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5대만 대폐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바로 되는대로 즉시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차량들이 조금 마모가, 노후 정도가 심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대폐차할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하시겠다, 내구년수가 6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에 가깝게 10년이 넘는 차량도 있고요. 이런 차량들을 몰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동감사를 통해서 차량들을 점검해보니까 노후된 차량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대폐차를 해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잠시 질의를 마쳤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우리 행정관리 국장에게 자료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도에 보면 서울시장이 연봉도 공개했고 자기가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하는 지방의원들이라든가 공

무원들은 의외로 금액이 적다라는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연봉이 4,800만원 정도로 공개되었고 또 그분이 쓰고 있는 연간 업무추진비로 약 4억여 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내역을 보면 각 사회단체 지원금이 1억 8천 정도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사용했던 식비가 1억 6천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추적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료가 계속 나오겠습니까마는 현재 공개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 각 25개 구가 있는데 구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와의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구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금액과 식비 기타 내용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시장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라고 한다면 월정급여하고 수당을 합해서 연봉이라고 합니다. 성과급 수당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연봉이 의외로 적다라는 감을 받았는데 물론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장과 공히 같습니다마는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신 가운데에서 총체적입니다마는 주로 우리 종로구가 각종 행사 친절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우리 종로구가 행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구로 오해가 나올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도 중요하다는 너무 많은 행사를 우리가 자제해 달라고 하는 말을 늘 감사 때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군의 공연을 봤을 때 저희들이 느낀 것은 말이죠. 우리 종로구의 각 국장님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지고 이런 동원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많이 치더라고요. 표가 안 팔리니까 각 동장을 동원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동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동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장이 안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입장이 안되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이놈의 표가 안 팔려서 걱정이고 빈 좌석을 메우려고 동원하다보니까 또 너무 많이 동원되고 그래서 국장님들이 전전공공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직원들 동원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은 공백상태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종로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우리 종로의 생명은 행사가 아니고 정도 600년의 고도다운 찬란한 역사를 재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사동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때 영국여왕이 왔다가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오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찢찢 때는 광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로관광종합대책이라고 타이틀을 거창하게 붙여놨는데 내용은 없어요. 관광안내책자 발간하는 정도이고 조그만 안내소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종로 정도 되면 종로구는 총체적으로 종합박물관입니다. 엄청난 공간을 확보해서 외국인들 또는 내국인들도 종로의 사계절을 공원 같은 것을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오는 분들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종로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고 감명을 받고 그것을 관광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종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행사만 잔뜩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종로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의가 없으시다면 이 계획 자체를 2000년도 소위 뉴밀레니엄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 千相旭委員님 참시 의적절하고 우리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세하게 나왔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어떤 공약 사항이었고 현재 NGO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현황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현실이 연말쯤에서 꽤 어렵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 연봉도 서울시장 연봉은 모르겠습니다. 4,8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기본급만 계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봉급순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장님 연봉이 한 4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 요구대로 아직 세부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많은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어놓고 서울시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종로구의 모든 문화인프라는 종로구민 뿐만 아니라 바로 서울시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나라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사동에서도 30여 억원을 들여 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추가로 2억 5,000만원의 화장실 예산도 시에서 종묘광장에 초현대식 호텔수준 이상의 화장실을 짓도록 2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전략입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편성된 종로구 자치 예산은 가능하면 구민복지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고 행사를 위주로 하면서 실질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 지원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千委員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600년 고도의 정취가 물씬 나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거

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사업비 한 이삼백억 중에 여기에다가 투입되면 표도 없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이렇게 급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 계획서에 말이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행사 중에서 특히 국악공연 같은 것은 예산을 변칙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행사를 반복해서 계획서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동원된 인원으로 관중을 채웠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吳局長께서는 시비를 흡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종묘 앞 화장실을 호텔급 수준으로 개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묘에는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3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종묘는 사실 100% 시비나 국비로 지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위를 그곳에서 하고 모든 시민들이 여름철이면 그곳에서 잠도 자고 생활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곳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산책삼아 한번 나가보십시오. 겨울철에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여름이나 봄, 가을까지는 새벽에 가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9시, 10시 되어야 나옵니다. 그전에는 청소가 엉망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묘는 세계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세계문화재를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관람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용은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또 그곳에는 화장실을 조그만 것 하나 더 설치하면 되고 그 돈을 말이죠. 인사동 지역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급한 나머지 어떻게 시민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손짓발짓으로 겨우 안내한 곳이 하필이면 재래식 화장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급하니 보는 꼴은 봤는데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영어를 모르는 안내분이 ugly korea가 뭐냐고 또 dirty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 정도로 정말 우리의 수도 서울의 추한 모습을 그것도 인사동의 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인도 하나 없고 물론 안내인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을 좋은 화장실로 안내했을 텐데 급하니깐 어떤 일하는 분이 안내한 곳이 하필 그곳이야.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은 재래식이라 안내하고도 욕을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공간에 안내인을 두 명씩 둘 것이 아니고 그곳에 땅을 사서 정말 종로다운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해서 계속적인 비디오크 방영해주고 또 화장실도 좋게 호텔급은 거기에다 지어야 됩니다. 종묘 앞에 지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또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千相旭委員 그런데 계획서에도 없고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요. 인사동에 우리

가 화장실도 짓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소하고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 서도 좋다 해서

○千相旭委員 우리 구청장의 시정연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도 지금 국장과 같은 내용에요. 종묘공원을 비롯해서 파고다 탑골공원에 화장실을 호텔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시정연설도 있고 지금 국장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더 중요한 곳이 인사동이다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인사동에 가 보면 노점에 상품이 짝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것이 중국산 상품입니다. 기념품이 우리 종로를 상징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종로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배지라든가 하다못해 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자 이겁니다. 종로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품을 연구개발해서 인사동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장사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다녀봐도 종로를 상징하는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이나, 저는 종로구의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외국은 한번밖에 안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30대 이전에 해외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 때만 해도 해외에 가면 각 구별 소단위 별로 자기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소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했던 기념품으로 선물용으로 사오거든요. 종로는 정도 600년의 고도입니다. 이곳이 이조 600년의 수도였습니다. 종로 사대문 안이, 그런데도 종로를 상징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똥한 데다 자꾸만 들어요. 그쪽에는 화장실 있습니다. 종묘공원도 있고 탑골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무슨 호텔급 수준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답답한 얘기예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인사동 문제는 저희들도 千委員님과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그러한 공간을 우선 영빈가든을 그것을 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화장실도 짓고 어떤 안내소도 만들고 비디오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공간 확보, 민익주기도 서울시에 매각하는 문제가 협의되다가 그것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방하는 문제, 인사동뿐만 아니라 종로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건물의 공중화장실을 개방했을 경우에 이제까지는 지난번 88올림픽 때 개방하도록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싫어합니다. 이것이 지정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개방한 건물의 건물주에게는 예산의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사동도 千委員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제가 5,6년부터 외국인들한테 저희들이 체감한 것이 직원들을 교육시켰던 여자강사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인상깊었던 곳이 인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동에 어떻게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고 계속적으로 인사동이 하나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축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고장에나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 우리도 인사동 축제도 그러한 축제로 어떤 외국의 축제처럼 이름이 날릴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정부 보조나 시에서 보조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千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큼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새로운 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서울시와 우리의 역할을 분담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허락하신다면 문화진흥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千相旭委員님의 말씀에 통감하면서 몇 가지 인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동의 화장실 건물은 서울시에서 39억 7천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3월에 우리 종로구에서 하수암거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도 8월까지 공기로 해서 화장실을 포함해서 관광안내소, 야외공연장 이러한 종합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千相旭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나와 있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내년도 3월에 하수암거 개량공사가 끝나면 내년도 8월까지 화장실을 포함해서 관광안내소, 야외공연장 이러한 거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통역안내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현재 5명이 인사동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월 5일날 우리가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 발대식 이후에 우리 인사동을 포함해서 문화관광명소에 이분들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라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우선 마련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제가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먼저 '98년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제출을 했었는데 답변서에 다 시정 완료되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회의수당을 월 2회 회의시 참석하는 자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00% 지급했다 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 답변서에는 시정요구가 다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또다시 전원 다 지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확인도 안해보고 이것을 다 완료됐다 이렇게 답변서만 내게 되면 아까 千相旭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시정을 요하면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죄송합니다.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정계장이 공문시달을 했다고 그래서 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의 의지입니다. 이런 공문이 구청에서 시달이 되고 참석한 통장에게만 수당을 주라고 강조를 하지만 동장님들 중에는 그냥 이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우리 洪委員님께서 행정감사했던 그 동에서는 그런 일이 그냥 전원 지급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외부감사기관에서 나와서 이것이 지적이 된다면 지급한 담당은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나가는 수당은 그 회의를 참석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10만원씩 120만원하고, 두 번 상여금 140만원은 나가도 관계가 없지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참석했을 때 나가는 것이 회의수당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더니 금년에는 보니까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들이, 그러면 우리 앉아 계신 공직자들도 무슨 일이 있어서 대리참석하게 되는데 그 27명이나 되는 통장들이 한번도 불참하지 않고 100% 다 참석해서 사인을 다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합리적인데 맞지 않고 이것은 만약에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우리 종로구 망신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방위대원들의 본교육을 유보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15일날 민방위 때 나와서 하는 지도요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자율방법을 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든지 신체장애자라든지 이런 면제자가 있는데 이런 면제자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서류 절차를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자율방법으로 활동한다든지 자율 방법일 그럴 때는 그 규정에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글썄, 면제조항이 있는데 면제조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의 30명은 자율방법원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담당하고 동장만 써서 놓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육하원칙에 의한 일건의 서류가 구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누구 누구는 면제다 이렇게 별도 처리만 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봐주고 싶으면 홍길동이 너는 지도위원이니까 이름만 써놓고 봐주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에 의해서 하면 적법한 서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배추장사가 문서 작성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작년에 시정을 요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공문에 보면 시정이 되었다고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그런데 동에 나가보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놓고 나서 시정이 안되면 우리가 행정감사 아무리 떠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민방위대원 수령증 하나도 제대로 안 받아냈어요. 그냥 쪽 해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 수령증을 받으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홍길동이 수령했다 그러면 관계되는 친지다 이웃주민이다 세입자다 그렇게 해놔야 우리

가 그 부분이 법적으로 고발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종이만 찢어다가 수령증으로 첨부해놓는다는 것은 옛그제 창설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더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매일신문, 제가 이것 때문에 매일신문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많이 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개 동에 4부 내지,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전체 동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본 자료에 확인된 사항으로 나한테 제시했을 때 4부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19개 동이면 80부 정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80부 정도면 7×8=56 56만원이 그냥 구비가 밖으로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700만원 정도가 매일신문사로, 밖으로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대한 구 예산이 밖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이 보지도 않는 예산이 밖으로 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매일신문사하고 어떤 섬싱(something)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또 못하고 계속 돈을 주고 있다 왜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냐는 애깁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송달사고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제가 감사과장한테 지난 달에 그 송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 보내 가지고 받아보니까 전원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조사자의 10%가 안되었습니다.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100%가 되는데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창신동, 송인동 그쪽에 어느 통인데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매일신문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지역 통장들하고 유대감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

서 만일에 한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우리가 대한매일신문에다 정식 공문을 사장한테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생각 외로 전달을 잘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일부 몇몇 전달하는 책임자가 책임감이 없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을 교체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달사고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洪起瑞委員 국장님! 예를 들어서 보급소에서 개인이 보는 신문은 자기가 매일 배달을 하고 수금을 합니다. 지로도 넣고 수금을 하는데 개개인 상대로 해서 수금하는 것은 열심히 배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금을 하러니까. 이것은 한 달에 한 장이 가든 두 장이 가든 우리 반장들은 매일신문사에서 무료로 주는 걸로 아직도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한 달에 10장이 들어오든 보름에 들어오든 간에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하고 하는 건데 매일신문사가 얼마나 알팍스럽냐면 그동안에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니 한달 전부터 의원들 동향을 실어요.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가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따보기 위해서 요즘에 의원들 활동상황이 나오더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에서 이런 알팍한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매회 의회란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실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가만 있다가 10월부터인가 의원들 하나하나 드문드문 실어준다면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을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번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신문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당시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에 통장들의 구조조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100여 명 정도 줄였는데 아직도 구조조정이 안된 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9,319명인 동에서 통장이 27명이예요. 그러면 우리 명륜3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똑같은 상황에서 12명이예요. 통장이 12명인데 이것은 27명 대 12명이라는 겁니다. 인구 비례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그 통장이 구조조정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장 구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희들은 계속 통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洪委員님이 말씀하신 27명은 세종로동하고 사직동이 합해져서 지역적인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먼저 하면서도 통장 감축을 열심히 목표 달성을 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좌절을 해서 유야무야 된 동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해서 감축하는 목표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지 어느 동장은 주민의 여론을 감수해서 통장들하고 악순환을 겪으면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동장이 있고 어느 동장은 통장들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인구를 예를 들어서 1,000명당 1명이라든지 아니면 500명당 1명이라든지 딱 지침으로 해서 동에 내려보내서 좌우지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억압적인 것이 아니면 구조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이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까지도 통장이 비거주자가 있어요. 그 업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기는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일산에 사는 사람이 지금도 통장으로 되어 있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지 동장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을 위촉을 하고 해촉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위촉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이고 주민의 신망도가 높은 이런 주민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촉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에 박동휴 명예구청장은 자기가 해촉된 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느 때 보니까 고문이다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을 문희웅씨를 위촉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구청장을 이분이 하시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했는데 해촉을 할 때는 자기 본인 의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을 해버리고 이렇게 고문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동휴 명예구청장 고문님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 자기가 명예구청장을 그만두겠노라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의상 그만둘 수는 없고 고문으로 다시 계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깁니다.

○**洪起瑞委員** 국장님! 총무과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그만둔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사실 명예구청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정관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구청장을 목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나한테 그분이 직접 와서 물었기 때문에 고문이 되었는지 명예구청장이 된 것인지 안 거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겠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 동정계장한테 그렇다고

○**洪起瑞委員** 동정계장님! 확실하게 박동휴씨가 와서 말했다는 겁니까? 명예구청장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洞行政擔當主事 李允洙** 關係官席에서 - 통

화했습니다. 그때 한국공해연구소에 다니시면서 공해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직무상 상당히 바쁘시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으니까 고문으로 추대하겠다 그렇게 동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와서 임의적으로 잘랐다고 얘기했어요?

(○**洞行政擔當主事 李允洙** 關係官席에서 - 고문이라고 해서 명예구청장이 해촉된 것은 아닙니다.)

○**洪起瑞委員** 고문이라는 것하고 명예구청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판도가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둘 의사가 있었더라면 왜 나한테 와서 나 이 잡수신 분이 지성인이 자기가 해놓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이 명예구청장이 해촉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목을 쳐버렸다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러면 청장님을 면담을 하러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그분이 동정계장한테는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분 인격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는, 42페이지입니다. 30+30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그렇습니다.

○**鄭泰淳委員**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금년 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시기가 금년 봄입니까? 통상적으로

로 이렇게 정규시간 외에 시작 30분 전 종료 30분 후에까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관공서는 몇 시까지 업무가 종료되고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주민 가까이에서 서비스하는 제도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30분 더 일찍 시작하고 30분 뒤에 이렇게 해주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도 홍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가끔 보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30분 전에 나와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이라든지 하고 또 민원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퇴근 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매우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동절기에는 5시가 마감 시간인줄 알지만 오다보니까 조금 교통으로 지체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30분까지 직원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다려서 처리해준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관공서의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 보면 도로사정 때문에 지체되어서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을 칼처럼 지킨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취지가 좀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우리 종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처리해서 취급이 안되는 일 같으면 큰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좀더 우리 종로주민 20만

주민들이 알고 또 전산으로 처리되는 등본 같은 경우는 특히 오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발급되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팩스민원이요. 예.

○**鄭泰淳委員** 그런 취지를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서 종로구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조금씩 심어주고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홍보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량은 쓰고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 차량은 현재 우리 안전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붕이 새거나 문틀이 안 맞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수리하는 데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공구함도 넣고 해서 재난안전순찰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 1대 사용하는 건데 경비가 너무 얼마나 많이 드나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많습디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동도서관은 각 구청마다 다 없어졌어요. 기사 월급하고 사서직하고 인건비가 1억 나가버리더라구요.

○**朴鍾植委員** 이동도서관을 운영 안 하느냐고 더러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해야지 어느 동네나 뒷골목이 있고 험한 곳이 많은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소규모사업

을 보면 너무나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삼청동이나 무악동 같은 데는 200만원 정도 되고 어떤 데는 동장이 2,500만원 이렇게 썼는데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북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5·6가동하고 접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내가 좀 편잔을 듣는 이런 예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소규모사업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할까 했었는데 소규모사업이 우리 초대 의회 때 각 동 단위로 500만원 이하짜리는 조그마한 공사는 동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근방의 업자를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99년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신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동네에다 소규모사업비를 배정을 해놓으면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개 민원이라는 것은 구의원한테 들어와요. 바로 했을 때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주민들 불편을 간소화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런 IMF 때문에 '99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마는 소규모사업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규모사업비를 동별로 500만원씩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토목과 심의도 거치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현장에서 필요할 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朴鍾植委員 구청에다 비상용으로 둔다 하더라도 한 동에다 2,000만원씩 정도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재는 동장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토목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려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행 하고 있는 제도가 형식적이고 예산을 통제한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朴鍾植委員 초대 의회 때 보니까 굉장히 편리 하더라구. 우리 동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초대 때까지는 한 동에 4,000만원씩 배정을 했잖아요? 500만원 이내에서 공사는 동장 직권으로 빨리빨리 했었는데 한 공사가 1,000만원쯤 된다고 하면 그것을 두 필지로 나눠가지고 하나까 아주 좋더라고요. 소규모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동사무소에다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소규모사업 자체가 그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아까도 우리 洪起瑞委員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화동에 명예구청장 같은 분은 우리 이화동에 단 100원의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큰 행사가 많잖아요? 경로잔치 행사다 구민체육대회다 단돈 1만원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구청에 어떤 점을 명예구청장으로서 협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 노인네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방위협의회에라도 한번 나오십시오 했더니 딱 한 달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2만원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명예구청장 하면 그래도 상당히 권위가 서는 감투인데 이런 큰 감투를 쓰고 있는 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화동의 명예구청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던 차체에 또 이복만 회장하고도 의논을 해봤어요. 이복만 회장이 제 얘기에 적극 동의를 하시더라고. 좋은 분이 있으니까 좋은 분을 나중에 동장님을 통해서 할 테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동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추천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구청에 무슨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지 어디 이북 어디 명예 그 감투 쓰고 있다고 준 것 같아. 그런데 이 양반 추천할 때 동사무소에서 나하고 의논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추천되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화동은 꼭 교체를 해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 회의수당이 '99년도에는 3배가 나갔어요. '98년도보다 통장 회의수당이, 아십니까? '98년도에는 회의수당 지급액이 '99년도보다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99년도에는 많이 나갔어요? 100페이지 통장 회의수당 지급현황이 '99년도에는 1,558만 7,000원이 나갔고 '98년도에는 671만 4,000원이 나갔거든요. 3배가 나갔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못된 것입니다. 년도가. 그게 계고 '98년도가 위고 '99년도입니다. 총무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鍾植委員** 잘못 지급된 건가 잘못 기록된 건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그 기관별 전화요금 특히 시외전화, 핸드폰을 비롯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관별로 안되어 있고 그냥 구청 토탈로만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어떤 부서에 전화를 걸어보면 통화중이 심해요.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어떤 부서는 전화를 걸면 즉각즉각 받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사무 전화를 핸드폰 전화나 시외전화 이런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과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좀 과별로 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되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참고로 조사를 해서 개인사무 전화는 생략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어떤 과는 전화가 안되더라고.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전화 시스템으로는 과별로 전화 통화횟수가 기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환기가 지금 옛날식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과별로는 지금 계산이 안됩니다. 전화국 번호로는 다 달라도 저희가 60회선 들어오는 외부전화 들어오는 걸로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는 집계 안됩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교환이 됩니다. 자동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朴鍾植委員** 그러면 시외전화하고 핸드폰 전화는 나올 것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데 짝 나온다고 하더라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나와요. 시외전화하고 핸드폰은 국장들하고 간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바로 전화번호가 나오고 일반 전화는 우리가 전부다 교환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통화가 어느 특정 과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환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朴鍾植委員** 여기 보니까 핸드폰 호출기 전화요금에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과에 전화를 걸어보면 나도 통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무(私務)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과는 많이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과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요. 참고로 시외전화하고 핸드폰은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과별로 필요하다고 할 적에 한 대씩 풀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각 동의 지역신문은 배부통장들한테 들어가고 반장들한테는 안 들어가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반장들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반장들한테 들어가는 데는 통장들한테 안 들어갑니다.

○**朴鍾植委員** 부수가 몇 부 안되는데 반장들한테 들어가도 몇 사람 못 들어가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갑니다.

○**朴鍾植委員** 일부만 들어가고 새마을이나 직능

단체들한테 들어가고 마을금고에 들어가고 의원 들한테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 렸습니다마는 12시가 되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것을 맞 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동료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東奎委員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외 국도시와의 결연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자매결연 체결현황 3개국 3개 도시 동성구, 수해바타르구, 랭카스터시티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얻은 것은 무 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교류를 통해

○李東奎委員 얼마 전에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나 왔던 부분인데 신문하고 일부는 방송도 나왔던 부 분이거든요. 아직 투자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안 되죠. 투자가 일부 있겠죠. 있는데 투자 중입니 까? 아니면 투자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 각도 느끼고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말이 예요. 직접 투자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 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투자입니다. 그냥 낭비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 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성구나 수해바타르구는 기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전 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서의 변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또 사실상 그분 들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자본체제가 갖춰져 있

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미팅 때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과장과 과장이 1대 1로 와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 궁금한 것 을 묻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에 따른 우리 중 로구의 위상을 한껏 높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 었다고 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손해네요. 실리를 놓고 본다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무형적으로는 우리가 많 이 얻습니다. 서로 마찬가지로입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기능직, 고용직 직급별 배치현황을 보면 '98, '99 현재 '9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계를 보 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98, '99년도 다 그렇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금 우리 2단계 구조조 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단계 140명 구조조정 감축 인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미 정원을 감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원이 있는 부서에서 는 앞으로 3개년 내에 현원에 맞게 줄여 나갈 계 획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이겁 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현원이 많다 그런데 유독 9 등급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보다 '99 년도에는 9등급이 더 늘어났어요. 현원이 그 이 유는 뭡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등급별보다 총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총계를 내는데 그래도 9등급이 제 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정원이 98명인데 현 원이 239명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연봉으로 올라가기 때문 에 9등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8등급으로 올라 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일 마지막 항 에 보면 행정관리국의 인력풀에 69명이 정원이 없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 때문에 총계 인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그렇게 집계되었다 그것이
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랑방 운영현
황을 보겠습니다. 41쪽이요. 효자동 사랑방에 대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입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 내역이 1,071만 2,000원 예
산 지원이 나오죠? 그 예산 지원하는 내역은 무
엇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인건비입니다.

○李東奎委員 인건비 지원내역, 지금 그곳에 직
원이 파견되어 있죠? 효자동 사랑방에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파견이 아니라 직원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파견되어 있을 것 아니에
요? 총무과 소속으로 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파견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나 근무
하고 있습니까? 근무요원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효자동 사랑방을 본 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해봤더니 위탁하는 쪽이 훨씬 우리한테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위탁을 하려고 했어
도 말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
난 '93년도에

○李東奎委員 아니,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는 사실 관광객도 없었고 아
무도 없었기 때문에 말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가 거기서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할 계획은 없느
냐 그것이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흑자가 나오니까 잘 우리
가 운영을 해야죠. 우리 전 직원들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흑자를 보고 있는 그 중에 오히려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면 더 많은 흑자를 볼 수 있더라
는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것은 서울시하고 직접

연관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
와대 행정과장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가 상품 하나라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
다. 왜냐하면 청와대 마크가 들어있는 상품을 팔
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李東奎委員 아니 우리가 상품 이런 것을 얘기
할 것은 아니고 있는 품목을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위탁
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
는 것이 더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어떤 근거에서

○李東奎委員 어떤 근거에서가 아니라 민간위탁
을 해주게 되면 위탁자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비스 개선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만 해주게 되면 보다 질 좋은 서비
스를 관광객들에게 주면서도 우리한테 가져오는
수지는 더 많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검토해볼
의사는 없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재 팔고 있는 품목까지
청와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어렵다. 안된다. 그 다음에 팔각
정 망원경 각각상각비라고 해놨는데 지출란에 무
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희들 처음에 망원경
18대를 샀습니다. 그 원가에서 내구년한으로 나
눠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끝으
로 하나 더 물을게요. 42쪽에 보면 맨 밑쪽에 운
영실적에 명예구청장 자택에 종로구민의 소리함
을 제작, 설치를 '99년 11월 297만원을 들여서 했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예구청장 집에 구민의 소리함을 갖다
가 걸어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명
예구청장 전체회의 때 명예구청장이라는 직함을

갖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이의가 있을 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건의가 있어서 설치해줬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도 그런 건의를 하면 다 설치해주겠네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럼요. 구의원님도

○李東奎委員 그러면 우리도 더 크게 해서 하나씩 걸어주십시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은 구민의 소리함 하나도 없는데 종로구에서는 명예구청장에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걸어주셨는데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더 크게 해 가지고 구의원들 집 앞에 하나씩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설치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까봐 제가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구민의 소리함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기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예구청장 소리함에 대해서 우리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명예구청장 덕이 아주 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특별하게 산책을 인왕산 쪽으로 간다는가 할 경우에나 가지 거기는 아주 외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명예구청장 덕에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동사무소 앞 같은 곳에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률적으로 집 앞에만 한다면 이것은 아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10분간만 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물었는데 96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통장 교체현황이 있죠? 그런

데 현재 '99년 11월 현재 우리 종로구의 19개 동의 통장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9월말 현재는 340명이라는 말입니까? 96페이지에

○總務課長 李炳滿 11월 현재는 358명입니다.

○金正大委員 11월 현재는 358명인데 다시 말해서 '98년도말 현재는 통장님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위에 보면 392명인데 제가 알고로는 전년도에 '98년도에 들은 이야기인데 405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것이 아마 6월경인 것 같은데 그러면 405명에서 400이라는 숫자에서 340으로 줄어든 것은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침이랄까 지시로 인해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된 것이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약 60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392명 중에서 340명이면 한 52명이 구조조정 되었네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 중에는 구조조정도 있고 일부 동이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철거된다는지 해 가지고 통이 폐지되어 가지고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율조정권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總務課長 李炳滿 그것은 자율조정이 아니고

○金正大委員 재개발한다고 4개 통이 없어지면 잠정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4개 통을 없앤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總務課長 李炳滿 그렇죠.

○金正大委員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율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통장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의 방침이나 지시 없이 구청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질문대상에서 질의를 뺄게요.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392명에서 340명으로 52명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다시 말해서 지역의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이 된 부분도 있

다 그거예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金正大委員 그런 부분들이 몇 분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金正大委員 구체적으로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이것은 답변이나 질문의 내용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종로구청에 통장을 몇 %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통반 조정은 몇 %를 줄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통반 조례에 보면 통상 20세대가 1개 반, 6 내지 8개 반이 1개 통 이런 기준에 맞춰서 통반을 운영하도록 각 동네다가 저희가 지침을 쥐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

○金正大委員 됐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總務課長 李炳滿 프로테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도 그 기준을 어딘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99년도 2월부터 5,6월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각 동별로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것은 상부로부터의 지시나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통반 운영조례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이런 조정실적이 없는데 우리 종로구만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金正大委員 타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總務課長 李炳滿 타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타구도 그렇게 했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

게 조정을 합니다.

○金正大委員 상부에서 어떤 지침 내려온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행정부가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이다 빅딜이다 해서 모든 것이 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통반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장들의 숫자를 가지고 인구가 예를 들어서 평창동 같은 데는 약 2만 정도 되는데 18개 통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종로 1,2,3,4가동은 38개 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신다고 했겠지. 그래서 기준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각 동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인데 예를 들어서 18개 통이고 인구가 7,890명인데 38개 통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는 통반 정리를 연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기준에 맞추도록 통반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연초면 저희가 한번씩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반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18명하고 38명은 인구 숫자 면에서 크게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조금 짧게 명료하게 나도 질의를 길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일문일답 식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따로 총무과장님 방에 가서 또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여담으로 하도록 하고 질

문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을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송인1동의 인구가 1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인2동이 1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구조조정을 송인1동은 5명을 줄여서 11명이 되었고 송인2동은 24명에서 2명을 조정해서 22명이 되어서 같은 인구 비례에 우리는 11개 통이고 송인2동은 22개 통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기준도 모호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잘못되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내가 시민행정위원으로 금년 7월부터 배치되었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종로 1,2,3,4동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인구가 몇 명당 통장이 있는지 지역이 넓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인구 몇 명당 통장이 하나입니까? 또 반장을 보면 반장은 아주 적어요. 38개 통에 반장이 100명인데 21개 통에 124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잘 정해서 두 분 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조정력을 발휘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후임자들에게 주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2시가 지났어요. 우리 위원장님 약속대로 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4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먼저 문화진흥과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보면 물론 종로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다 5,7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이게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자원봉사단체는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모든 정산 같은 것을 문화진흥과에서 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지출을 해서 단체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바로 정산을 하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임의보조금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가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 당시에는 우리 종로구 내에 사회단체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회에서 집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협의회는 실체가 YMCA 강국장이 회장을 맡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종로구가 먼저 그와 같은 사업을 개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강국장의 일을 우리 당시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보조를 했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보조를 했으면 거기에 강국장이 자기가 명의로 이런 정산서를 내주면 우리가 오해를 안 받지만 우리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다는 얘가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한 걸로 하면 회계상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

고 하면 정식으로 예산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거고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99년도 임의보조금에 나간 것이 24개 단체에 나갔네요. 24개 단체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정산서를 해온 것을 보면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있어요. 영수증도 없이 바로 얼마얼마 이렇게 집행만 하고 뒤에 영수증을 안 붙였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확인해 볼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되었는데 이것이 영수증 없는 정산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조직에 우리 지회 밑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금고하고 문고, 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금고, 문고, 지역, 부녀, 직장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죠. 5개 단체에 속해있는 것은 지회에 속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회를 정액보조단체로 봅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정액보조단체

○洪起瑞委員 정액보조단체로 보조? 그래서 사실 지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우리도 몇번 협의회나 부녀회에서도 보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임의보조금이 새마을문고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어요. 새마을문고에. 그러면 같은 지회에 속해있는 단체에 어느 단체는 이게 된다고 해서 보조를 배정을 하고 어떤 단체는 서류를 올려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한 행정을 다루는 한 과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애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속해있는 단체가 안되면 다 안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안되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배정을 하고 어떤 단체는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이쁜 장한테는 배정을 하고 나같이 못생긴 장이라고 하면 배정을 안하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가 새마을문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문고가 운영되었을 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운영이 되던 게 지역별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의보조단체에 딱히 금지조항은 없지만 어떤 활성화시킬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 국장님! 말씀 잘했는데 그러면 지회와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침체되어도 좋다는 그런 애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이제까지 4개 단체, 직장생활까지 5개 단체인데 지금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게 새마을부녀회 얼마 새마을지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그게 없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정액으로 편성지침이 있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었죠.

(○劉燦鍾委員 議席에서 - 국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님! 이해하시겠어요?

○洪起瑞委員 예.

○劉燦鍾委員 새마을지회 5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문고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금이라는 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것은 매월 다달이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는 지금 정액보조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간 거고 새마을문고는 동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없다가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는 행사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의보조금이 추가로 나갈 수 없지만 문고나 금고나 어떤 직장생활의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이 권장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문고도 우리 구 단위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지역이나 부녀회나 구 단위는 안 나옵니다. 보조가 나가더라도 동 단위로 나가지 구에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요청하는 거지 동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로구 문고도 동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종로구 지부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의 정의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이나 부녀도 다 동 단위로 나갑니다. 동 단위는 정액보조가 나가요. 그런데 구 단위는 지회만 예산이 떨어지지 우리 지역이나 부녀에는 안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역에 구 사업이 있고 부녀도 구 사업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종로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면 그 단체에 임의보조금은 적당하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요. 그런 얘기도 내가 어떤 문고에 나간 걸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체 내에 5개 단체인데 구에 나오는 것은 지회로 나오는 것은 정액보조는 지회의 사업이지 우리 지역이나 부녀나 문고와 직장이나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도요. 그러면 이 배정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임의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는 똑같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문고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더 낮고 지역이나 부녀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한다고 하면 적게 같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은 다 안 합니까? 엄연히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자연보호단체에는 왜 임의보조금을 배정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신청을

○**洪起瑞委員** 신청을 해도 이것은 안된다고 자꾸 과에서 들이맞추니까 하는 얘기도요. 신청을 왜 안 하겠느냐는 얘기도.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자연보호와 관련된 단체에 몇 군데 많이 나갔는데요

○**洪起瑞委員** 그것은 환경보호연합회나 이런 거지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배정을 안 하였다는 얘기도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명년도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배정을 하시겠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배정 기준이라든지 임의단체의 운영 실적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자연보호단체의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단체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습시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새마을문고의 지원도 각 동별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 나간 것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꼬집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단체가 우리 종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임의보조금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서 이런 얘기를 신청을 할 때 편의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편의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딱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올

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사유가 나오겠지만 담당자가 미리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99년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의보조금이 적합하게 나가야 할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같은 데 이런 데에도 임의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학교에도 임의보조금이 나가야 되냐는 거지. 전주이씨대동종약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가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임의보조금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임의보조금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임의보조금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안돼요. 그리고 임의보조금 정산서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영수증을 일괄 처리해서 해야지 그냥 얼마 썼다 해서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 동네 친목회도 어떤 것을 할 때는 영수증을 붙이지 이렇게 얼마 썼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색이 이게 구의 구비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얼마 얼마 써가지고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임의단체보조금을 사용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회계서류를 성실히 한 곳에는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의 견해를 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기 부모가 없는 손자를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양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하나의 직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계로 볼 수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차원에서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된다고 봅니다.

○**洪起瑞委員** 된다고 보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녀회 지도자가 손자를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손자를 키우고 있어서 우리가 장학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단체장들로

구성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사회진흥과 담당이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잘랐어요. 임의적으로.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과의 담당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다 올린 것도 이렇게 담당이 잘라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해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장학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부모가 없어서.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학금을 심의를 해서 이것은 물론 자식이 아니지만 손자도 자식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체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올렸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금방 제가 봤습니다. 그 조항에 보니까 자녀에 한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것이 법률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녀에 한해서만 주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확대해서 손자까지도 자녀로 보고 지급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느냐면 그 애가 자기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볼 수 없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것을 부양을 하고 있으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오

히려 자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 이외에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洪起瑞委員**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담당선에서 그런 것은 잘 생각하게 되면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면 그런 선까지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리이러해서 이런 법적인 사정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였습니다 하고 공문 한 장이라도 보내줘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급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네에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2개로 구분되어 있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생활체육 취미교실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체육시설이 공원 내에 있으면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을 시키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느냐면 체육시설을 해놓고 누구든지 체육시설을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는 예산편성이 없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명륜동에 배드민턴장에 골대가 삭아가지고 우리가 문화진흥과 소관인줄 알고 두달 전부터인가 건의를 했더니 우리 담당 하시는 말씀이 서부에서부터 해오니까 염려마십시오,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왜 안되었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공원녹지과 거라서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관내 주민

을 대표하는 의원의 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사전에 사실 조사를 해서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면 빨리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 있다가 두달 지나고 나서야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공원녹지과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녹지과의 시설계장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단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문화진흥과 것이 아니면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달간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종로구의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참 어려운 취약하고 열악한 지역에서도 우리가 서울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아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년도에는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내년도에 2,000만원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충남당진이라는 도기마을에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 환경이 우수하다고 해서 견학을 갔더니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 단위로 마을을 경쟁을 붙였어요. 심사제를 해서 최고 우수한 마을에는 상금을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걸고 거기에 잘하는 마을의 우수 담당공무원은 진급에 특전을 주는 이런 사례로 하다 보니까 사업쪽도 낮고 월등하게 쾌적한 그런 마을이 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어차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종로가 심장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외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눈에 띄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종로도 그런 데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 단위의 이런 경쟁을 붙여서 우리 종로를 쾌적한 이런 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고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개의 추진반을 구성할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도 사실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이미 치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모든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꽃길가꾸기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려다보면 좀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러다보니까 만일 우리가 1등을 하게 되면 시에서 상금이 5억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洪起瑞委員 질의 중에서 체육시설 문제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공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체육시설을 어느 한 과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셔야지 이것은 여기다 저기다 해서 혼동을 일으키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중의 한 가지라고 사료되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아직도 몇 번을 묻지 않았는데 제가 점심시간 전에 10분을 채웠기 때문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을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같은데 구독료 집행내역 있죠? 내가 2대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건설쪽에 오래 있다보니까 신문대금이 말이죠 118쪽에 보면 2억 5,219만원 6,000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과연 종로구의 구민들께서 이것은 분명히 헐세입니다. 누구의 신문대금을 연간 2억 5천만원씩 이렇게 과연 누가 허락했고 나눈 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구의원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물었습니다. 경향신문 외 23종인데 경향신문 1종하고 22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지역신문 종로저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일간지가 다 포함됩니다. 동아일보부터 각 실·과에 재무과나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23종이 경향신문까지 하면 24종이다 그 말이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표현상 24종에 대한 각 신문별 다시 말해서 종로신문이다 종로저널이다 경향신문이다 이렇게 뽑아주실 수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황이 공보실에 나와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공보실에 나와있는 것은 내가 공보실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봐야 되니까 모르겠고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내가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2억 5,000만원씩 신문대를 꼭 대납을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해줘야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순되지 않나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마는 2억 5,000만원어치 신문을 과연 누가 봤느냐, 누가 2억 5,000만원씩 신문을 구독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1년분이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이것은 2억 5,000만원

은 거의 95% 2억 3,000만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통반장들이 보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우리 주민들이 경향신문하고 이런 신문을 전부다 공짜로 본다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대한매일신문이 주종이지만 재무과에서 입찰관계 등 각 과에서 시사성이 있는 정보를 우리 공무원들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시사성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보게 해달라고 조른 주민들도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통반장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또

○金正大委員 통반장하고 주민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천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적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더 많이 썼는데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럼요. 더 많이 보고 있었죠.

○金正大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생활 하면서 가정에 앉아 있으면 불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홍수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있죠? 그것 불 시간이 없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런데 金正大委員님이 일간지 끊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반장님들 또

○金正大委員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지 金正大라는 어느 議員이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 주는 이 협세를 적재적소에 써서 종로구를 진짜 말만 아닌 정말 아름다운 곳에 투자를 하고 내 실있는 곳에 투자를 원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신문 끊는 것을 원했던 말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 지금까지 통반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통반장님들한테 이번에 참석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물어보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신문대금이 나가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십니까?'하고 말씀드릴게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고맙습니다.

○金正大委員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떠나시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전에 있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고수한다면 뭐 하려고 현정부나 과거 정부가 개혁을 주장하고 세계화를 주장하고, 그런 것은 말잔치죠. 말잔치. 전에 했던 대로 답습한다면 지방자치도 할 필요 없죠. 그냥 임명제로 그냥 저냥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변화를 요구합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 그런데 우리 金正大委員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감축을 하고

○金正大委員 일간지 어느 집이든지 신문 한 부 안 보는 집이 없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2억 5,000만원의 금액은 '98년도 것이고 '99년도는 한 10분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필요하게 신문을 보지 않으려고 공무원들도 연 일이천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金正大委員 제가 국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을 보는 집에 종로저널도 들어가고 종로저널 들어가는 집에 종로신문도 들어가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안 들어갑니까? 종로저널 들어가는 집에 종로신문은 안 들어갑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통반장 집에는 대한매일신문하고 종로신문하고 지역신문이 들어가는데요.

○金正大委員 아니 통반장 집에 2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24가지는 각 실과에 들어가는데

○金正大委員 실과가 주민들이 사는 데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죠.

○金正大委員 아까는 전부 주민들이 쓴다고 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대부분의 대한매일신문

이 통반장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문값이고 거기서 극히 일부인 일이천만원이 우리 실과, 동에서 쓰는 공무원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들이 다양하게 경향신문, 경제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실과에 2개 종목씩 들어갑니다. 한 과에

○金正大委員 그러면 그것은 과에 국 과장님들 판공비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내지 이것을 싹 변화를 시키고 청와대 같은 데다 '우리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 좀 일등 해봐요. 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꾸 공짜로 보게 해주는지 이것은 전근대적이다 이것입니다. 이조시대도 과연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월급 200만원 타는 사람은 한 달에 신문대 20만원 내도 돼요. 그런데 2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만원도 못 버는 근로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한마디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항간에 듣기로는 지역신문 2개 중에 모 신문은 휴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얼마씩 나가는지 11월달 381만 6,000원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 아시겠지만

○金正大委員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종로신문하고 종로지널이 있습니다. 종로지널은 현재 발행하지 않는 사유는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발행하지 않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지널에 구독료가 월 200여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잠깐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백에 가까운 돈이 나왔어요. 1월달에는 370만원이 나왔네. 지금 여기 118페이지에 기록된 것

은 '98년도 겁니까? '99년도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118페이지는 '98년도 구독료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99년도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됐어요. 나도 봤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2월달에는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기록을 안했다는 거예요? 10월달에도 476만원이 나왔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99년도? 10월말까지만 통계가 잡힌 겁니다.

○金正大委員 10월말 이후에는 지역신문에 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과에서 집행되는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뭐 하려고 과장 회의를 하고 매주 그렇니까? 현금이 몇 백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못 챙긴다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金正大委員 10월말까지 476만 8,000원이 나가고 11월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안 나왔네 이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11월달에는 한번 발행을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 사람들이 발행을 하면 돈을 주고 발행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고 그렇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발행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예요? 그쪽에서 달라는 요청을 안 했어요? 이쪽에서 임의적으로 안 준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것은 1회만 발행해서 1회분만 집행했습니다.

○金正大委員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 그쪽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만 알면 돈을 지급해주느냐 그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송달을 해야 지원을 해줍니다.

○金正大委員 송달 완료해야 해주는 것이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종로신문도 11월달에 발행을 했든 안 했든 안 나왔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원래 신문 지급은 송달한 월말에 지출을 하는데 종로저널은 11월 8일에 지급하고 그에 대한 1회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지출하고 11월달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종로신문은 곧 지출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金正大委員 예산과장님! 종로저널도 들어오죠? 기획예산과에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金正大委員 발행하면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들어옵니다.

○金正大委員 종로신문도 들어오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金正大委員 대한매일신문도 들어오죠? 24개 종목이 다 들어옵니까? 몇 가지 들어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것은 과별로 다 다릅니다.

○金正大委員 기획예산과만 내가 묻는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우리 공보실은 전체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고 또 틀리네. 뒤의 계장님 말씀하고 틀리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우리 공보실은 공보물을 총괄하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기획예산과가 공보실이에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0월말에 넘어왔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각종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합니다.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저쪽에 여권과장님! 신문 몇 가지 보고 주세요?

○旅券課長 黃義振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하고 조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은 안 보고 있습니까? 주지도 않아요?

○旅券課長 黃義振 종로신문은 민원홀이 있기 때문에 몇 부씩 들어옵니다.

○金正大委員 여기에서 거것으로 대답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기에는 이 2억 5천이란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구의원들도 35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 신문대 자기가 내고 보는데 나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 매일신문도 본 적이 없어요. 보기도 싫어요. 또 볼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뭔가 낭비성이 아닌가 또 기사가 주요기사가 되었던 대소사 기사가 아주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균형합니다. 이래서 앞에 계시는 행정관리국의 과장님들! 각성을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2억 5천을 1억 이하로 줄이세요. 그래서 머지 않은 날 가서 이것은 지방자치, 구의원들이 목소리일 뿐인 것이지 “金正大가 통반장들 신문 주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다면 그 직원은 바로 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사석인줄 알고 여담삼아 하셨는데 통반장들 신문 주는 것 좋지요. 통반장님들 민방위 수당 그것도 가지고 60세 이후나 60세 이하나 실태라 얽히듯이 지금 이 사회는 정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집행부에 계시는 행정의 주무국장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주체성이 덜 확립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제2건국, 국민을 위해서 개혁, 변화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 하던 것 계속한다, 안되죠. 그래서 소망도로 하나라도 더 뚫고 뭐라도 하나 하고 신문은 각자가 사서 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관변성, 억지성, 주민이 바라지 않는 이런 것을 자꾸 보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신문 보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홍보물 사태가 대단한 홍수사태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짚막하게 해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제 방에 신문이 여섯 종류가 들어왔었어

요. 저도 그것을 세 가지만 보도록 하고 그것을 정말 필요한 부서로 돌려라 해서 저 자신이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金正大委員님이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조그만 신문사들의 요구도 많이 거절하지만 金正大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金正大委員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점진적으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시다시피 이것은 '98년도, '99년도에 많이 즐겼고 점진적으로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신문만 구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몇 부를 보느냐 하는 것은 28부를 보는데 공보의 업무상 모든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을 자꾸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홍보물 기능에서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어도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체는 TV가 가장 좋은 최고의 수단인데 TV는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신문인데 그래서 지역신문도 그래서 우리가 지역신문의 발간 목적대로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고 도시가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한매일신문도

○金正大委員 국장님! 하나씩 끊어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총괄적인 강론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만큼 구의원을 2대째 하고 있는데 대충 제가 다 아는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역신문이 11월, 12월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4,768만원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아니 476만 8,000원입니다.

○金正大委員 그 위의 계를 보십시오. 4,768만원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아, 1년 동안

○金正大委員 1년도 10월까지 나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에 476만 8,000원입니다.

○金正大委員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768만원이 맞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金正大委員 그러면 말이죠. 여기 두 달치가 나가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2개 동의 소규모 사업 예산이 왔다갔다합니다. 1년 동안 2개 동의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문 보고 싶으면 1년에 3만원씩 내고 보면 되는데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몽텅몽텅 잘라가지고, 예산 자체를 어디서 수립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수립한 것이 아니에요. 내놓으니까 마지 못해서 통과시켜줬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신문이 두 개 씩이나 우리 구만 있는지 다른 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조금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사랑지가 매주 나가고 있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반상회보입니다.

○金正大委員 거기에 우리 종로구 홍보를 하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런데 그것이 전과가 안 되어 가지고

○金正大委員 전과가 안되는 것은 통반장들이나 동사무소 일선 직원들이 홍보의욕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신문을 앞으로 50가지를 더 보게 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24가지인데 48가지를 더 보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참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직원이든지 제가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金正大委員이 신문대금 줄이라고 했다 통반장 신문 못주게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종로구의 머슴이 아닙니다. 종로구 직원으로 저는 보지를 않겠습니다. 누가 여기서 발언하겠습니까? 다 우리 구민들의 돈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통반장들 신문 자기네들이 내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인심 쓰듯이 특히

국 과장님들이 말씀하신다면 발상이 잘못되었다. 청와대에서 행사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헛일입니다. 안됩니다. 발상이 그렇다면 안됩니다. 종로 최고의 머슴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누가 홍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시는데 앞으로 예산에도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신문의 몇 부씩이 우리 종로구청에 들어오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신문부수, 그런 상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金正大委員** 그리고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또 계속이라는 말을 붙이네. 계속 안돼서 2억 5,000만원이 2,500만원이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몇 분이나 보고 통반장이나 주고 나머지는 말아 버려요. 누가 신문 보자고 사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라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李炳滿 總務課長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구청장 위촉이 어떠한지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명예구청장 위촉 배경은 저희가 각 동장들을 통해서 명예구청장 대상자 추천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현황은 저희 구 같이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곳도 있고 운영을 못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측에 속합니다.

○**劉燦鍾委員** 명예구청장 회식비는 구청장 간담회 회의 개최 해서 예산을 '97년에서 '99년까지 1,157만원을 썼네요. 명예구청장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명예구청장님들은 저희가 간담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구청장님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명예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의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구 전체를 위해서 이런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주시고 그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명예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구청장하고 명예동장하고 직급이 다른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명예동장은 동을 중심으로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명예구청장은 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동장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 있는 대로 명예구청장님들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지난 6월 1일 같은 경우에 명예동장, 명예구청장님이 같이 수련회도 다녀오시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 호봉이 몇 호봉 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34호봉입니다.

○**劉燦鍾委員** 34호봉이요? 연봉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연봉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3,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劉燦鍾委員** 명예구청장 간담회 개최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네요. 참석대상이 43명이 참석했는데 명예구청장, 고문을 포함해서 29명, 구 간부 8명,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4명 그래서 예산이 1인당 2만 5,000원짜리를 썼어요. 저녁 회식값을

○**總務課長 李炳滿** 예.

○**劉燦鍾委員** 우리 지역구 구의원들도 2만 5,000원짜리 먹기 힘듭니다. 어떻게 34호봉이 2만 5,000원짜리 식사를 합니까? 구예산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만 5,000원짜리 식사는 헌신적으로 노력한 봉사에 대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세요.

○**總務課長 李炳滿** 보통 저희가 저녁을 일반 식당에서 하게 되면 아마 저녁준비를 하게 되면 2만 원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식당의 평균을 봤을 때 비싼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명예구청장을 하게 되면 명예구청장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도 하고 그래서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가지고 식사를 한 겁니다.

○**劉燦鍾委員** 명예구청장님들은 소위 말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여론도 수렴하시고 그러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명예구청장님들이 어떤 일 개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의견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까 그것을 염려하시지 구의원들을 비방하거나 그런 의견은 저희가 수렴도 안할 뿐더러 그 정도는 명예구청장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구청장 교체시기는 언제입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명예동장님하고, 임명일자를 하나 주세요.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저희 명예구청장을 옛날에는 1년단위로 재임명하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임기는 저희가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것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물론 동장님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의가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결정해서 할 때는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명예구청장 구민의 소리함 제작건입니다. 279만원이 되어 있네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劉燦鍾委員** 구민의 소리를 '99년 11월에 설치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劉燦鍾委員** 한달 정도 됐네요. 현재까지 구민의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이것이 지금 바로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바로 12월부터 월별로 저희가 접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명예구청장들이 구민의 소리함 제작을 300여 만원의 거금을 들어서 설치하고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각 과에 전화하면 아주 과장님 계장님하고 통화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민원이 그만큼 폭주하니까 그렇겠지만 각 동장은 직통 전화가 설치되어 있죠?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각 동의 저희 행정전화가 있고 저희 전화중계를 통해 가지고 일반전화기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전화라 하더라도 구청 전화중계를 통해서 하는 전화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각 19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행정전화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예구청장이 시키는 구민의 소리함은 300여 만원 들어서 설치하고 구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과에 전화하면 하루종일 전화가 불통이고 꼭 구청에 와서 해결해야 되고 또 마침 오면 간부회의다 뭐다 해서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런 마당인데 행정전화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아직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할 때 행정 각 지역구 19분의 의원님에게 행정전화를 개설에 따른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짜 가지고 의회에 이관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劉燦鍾委員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正大委員님이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문대가 2억 5,000만원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화통화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다 바쁘신 분들인데 국과장님들 전화통화하기도 힘들고 와서 만나야 되고 만나면 시간이 없어서 회의 들어갔다 뭐다 해서 만나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발상보다는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행정전화를 개설해서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아유, 그렇지 않아도 구의원들 머리 아픈데 전화 바로바로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상당히 진전공공하시는 면도 없지 않은데 이런 면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行政管理局長님! 총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 劉燦鍾委員님!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예구청장 제도가 옛날부터 이게 각 구마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마는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민 자치하고 민주화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주민의 참여입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해왔던 명예구청장과 명예동장님들의 제도로 하루씩 근무도 해보게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하지 않고 집행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이러한 명예동장이나 명예구청장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행정전화는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행정이 아무

리 좋은 보석같은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이것은 그림 속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주민들에게 반영하고 의원님들이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매체로 우리 행정전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용량을 바꿔가지고 행정전화 용량이 나갈 수 있는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제도일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劉燦鍾委員 예,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명예구청장, 명예동장 위촉에 대해서 애를 먹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장 분개한다면 좀 어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는 관계관들이 지명해 가지고 명예구청장들이 구행사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을 앞서가고 또 문란하게 행사에서 품위를 잃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관은 위계질서를 분명히 쥐가지고 의원들의 위상을 좀 높여주고 그 분들에게는 자제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접적인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먼저 민원부서의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묻습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부서별 우편물 반송 현황에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 현재까지 반송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표가 있으면 바로 하나 뽑아다 주세요. 전년도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서별 우편물 반송 현황이 8,214건으로 무려 1,013만 6,080원이라는 돈이 옆으로 새버렸습

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우리 구민들이 뼈를 짚는 아픈 혈세를 낸 돈이 이렇게 옆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李東奎委員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변화가, 행태 변화가 음에 따라서 이 우편물이 주소불명도 주소가 착오로 반송되는 것도 있지만 수취인 거부로 반송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 모든 가정주부들이 낮에는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우편이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타구에서도 공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 3,4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방안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것을 재무국장을 할 때 통반장님들에게 고지서를 전달을 하면서 최소한 1건당 500원씩의 요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용역 방법은 없는가. 하지만 현재 관계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송이 되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에서는 과감하게 용역을 시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구는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3분의 2가 다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뭐 이런 일반우편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전달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하시겠다는 소리는 내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개선하겠다고 들었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개별법에 어떠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했을 때는 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고지서로 용역 관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용역인이 전달하면 거기에 만약 분실이라든가 해서 납기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이 당장 전달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이 의견을 내놔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혈세가 자꾸 옆으로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기 앉아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실시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량이 틀리거나 규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발생하는 건수도 상당한 건수가 나오더라 얘깁니다. 이러한 건수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인재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덜 했고 조금더 가까이 접근을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은 놔두시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에도 각 우편물 같은 게 등기로 우송이 되면 증거력이 있는데 일반적인, 심지어는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드렸는데 일반 우리 봉사요원들을 임시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돌려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력이 없습니다. 증거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각 동이 축소되고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각종 고지서가 전부 등기우송이 되는 전망입니다. 등기우송하게 되면 반송료가 거기에 비례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병사관계도 영장 전달관계를 각 동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

들을 총집합을 구청에 시켜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몇 개 동씩 맡아가지고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기본틀을 짜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본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기본틀을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기본틀 내용이 있습니까? 그 기본틀에 잔 관련기준을 만들어놓은 기준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공익요원들을

○李東奎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장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규정을 정했고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하신다고 하셨죠?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그래서 병사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 기본틀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이라든가 그 규약이라든가 기본틀을 만들었으면 갖다주셔야 알죠.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각 과별로 보면 가장 반송률이 많은 과가 세무1과입니다. 무려 30.5%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보내고 하겠습니까라는 이게 30.5%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인재에 가까워요. 거의 타구의 것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가까운 중구 같은 경우에 반송률이 세무1과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몇%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더블스코어입니다. 이것은 필 의미하느냐 바로 민원봉사과에서 노력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좀더 가깝게 접근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저희들이 우편물을 받을 때 보면 분명히 종로구 무슨무슨 동 몇 번지의 몇 호

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주소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것이 한두 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똑같습니다. 이름이 틀려요. 그런데 우편물 배달하는 사람이, 몰라요 조그마한 구의원이라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름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집어던져놓고 가요. 그것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반송이라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것은 뭐냐 번지내 투입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보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더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인재에 가깝다. 인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것이

○李東奎委員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되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세무1과에서 재산

○李東奎委員 세무1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데는 일반우편을 보내는데 세무1과는 세무고지서를 지금 등기로 우편을 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우편을 보내므로 반송과 반송료가 거의 세무1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와 소관이 아니고

○李東奎委員 거의 제가 각 과별로 현황을 뽑아봤어요. 우리 총무과 같은 데는 세무1과가 30.5%인데 비해서 총무과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같은 데는 그만큼 접근을 했다고 봐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반송률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무부서에서 세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시정하시겠습니까? 계속 시정하신다고 하시지만 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8쪽에 경찰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98년과 '99년 경찰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종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동대문경찰서 해가지고 지원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미난 게 발견이 되는 것이 종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는 미운 털이 덜 박혔고 동대문경찰서는 미운 털이 많이 박혔는지 왜 종로경찰서가 그중 많고 서대문경찰서, 그 다음에 동대문경찰서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우리가 전경들 숫자를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경찰서는 특수대이기 때문에 동대문경찰서 전경들보다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두번째가 서대문으로 해서 전경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런데 '99년도에는 왜 동대문경찰서가 많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대문경찰서가 금년에 행사가 많았다 사망자가 있었다든지 데모대가 서대문지역에 많았다 그런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李東奎委員 그런 기준이 없고 그렇다면 서대문경찰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줬는데 동대문경찰서는 홍보물이 없는 이유는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홍보물이 다른 게 아니라 간첩신고 홍보물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동대문경찰서는 경찰서가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어떤 데는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각 경찰서에 싸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하는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경찰의날' 행사 때 구청에서 구청장이 행사에 와달라는 경찰서가 있고 구청장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는 경찰서가 있고 그

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필요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얼버무리려고 어영부영 하시지 말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육을 300kg을 전달했어요. 무려 150만원 상당에. 그런데 '99년도에는 150만원 상당이 되는 라면 196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놓고 180kg을 또 증가시켰어요. 그러나 '98년의 합계액은 경찰서 당초 금액이 728만 4,000원인데 '99년도는 967만 4,000원입니다. IMF가 끝나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IMF가 지금 끝난 겁니까? 어디에 근거 기준을 두고 지금 증액을 시켜나가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합니다. 3개 경찰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합니다.

○李東奎委員 예산 한도라는 것이 경찰서의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 예산에 편성된 한도 내에서 대상인 3개 경찰서 운영을

○李東奎委員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거기에서 군부대에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쓸 수도 있고 피지원 부서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게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무슨 답변이, 사망조의금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사망조의금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사망조의금을 우리가 무슨 1급은 100만원 주고 공무원 급여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피지원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판단해서 이것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균형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대답은 시원치 않은 걸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대답이 시원치 않더니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李東奎委員 예산이 지금 '98년도 쓴 것하고 금년도에 쓴 것하고 '98년도는 IMF가 왔는데도 적게 썼는데 '99년도에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관내 경찰서, 군부대 지원 이 예산을 1,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군부대에서 3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3개 경찰서에서 100만원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얼마 이상 줘라

○李東奎委員 알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은 경찰서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준도 없고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책정해준 대로 지급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대폭 삭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53쪽에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사 임대 상업은행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보건소 부설주차장, 삼정테니스장, 지하수 관리연보 상업광고 유치에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겠습니다. 구청사는 상업은행 즉 한빛은행입니다.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공무원님들에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상업은행이라는 은행은 지금 없습니다.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한빛은행으로 되기 전에 계약서상에는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구 상업은행입니다. '구'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지요? 계속 글씨만 갖고 꼬집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만큼 경각심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구 상업은행 즉 한빛은행이 우리 구청에 있는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지금 높이실, 더 높여 받으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답변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재무국장 소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하시지 마시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재무국장 소관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다 보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李東奎委員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노력해주신다고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54쪽 공공근로사업 동별 과별 동원인원과 사업내용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總務課長 李炳滿 李東奎委員님!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1차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李東奎委員 그게 몇 월달부터 넘어갔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했죠?

○總務課長 李炳滿 작년 10월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의회에서 저희 총무파트로 해줬는데 자료는 일련번호 순서대로 하느라고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이것을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委員長님! 이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작년 10월달에 넘어간 부서가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총무과에다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이걸 넣었다는 얘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잠깐만 주세요.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도 그것을 알고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를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련번호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련번호 순으로 하고 책은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일련번호로 안되어 있었으면

○李東奎委員 그러면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처음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李東奎委員 처음 나온 질문이니까 그때 양해를 구하겠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님 지적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글자 오자가 여러번 발견되었고 이것은 수감 태도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이 지적한 후에 이것을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 지적이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를 처음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다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 질문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李東奎委員 과장님! 수감 태도를 조금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나와버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委員長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따가 물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委員長 李憲九 이 문제는 말이죠,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이해가 되지만 일단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련번호가 없이 왔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과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일련번호가 일단 되어 와가지고 총무과로 번호 순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여기에다 일단 놓어놓고 그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시다마는 李東奎委員님께서 질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막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감 태도는 더 진지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촉을 하고, 李東奎委員님! 질의가 끝나셨으면

○李東奎委員 아닙니다. 제 질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재를 해주시는데 제재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委員長님! 이런 경우는 의원들을 얼마나 기만하는 것인가 많이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 작년 10월달에 소관부서가 넘어갔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이라고 해서 자료를 여기에다 제출해서 같이 페이지로 실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과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한번 떠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委員長님! 이 부분은 별도로 두셨다가 나중에 제재를 확실하게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대로 하고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안녕하십니까? 安載弘委員입니다. 文化振興課長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제출하

신 자료 127페이지를 보시면 반상회보지가 월 4만 1,000부가 발행되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종로사랑을 말씀하십니까?

○安載弘委員 예, 반상회보 4만 1,000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이 재질이 재생이 가능한 용지를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생용지를 사용하는지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위원님!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安載弘委員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반상회보지가 월 4만 1,000부가 발행되는데 이 반상회보지 발행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安載弘委員 1억 9,000만원하고 편집위원 회의 수당 하면 2억 가까이 되겠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다 포함해서 1억 9,900만원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2억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 내용 중에 반상회보지가 월 4만 1,000부가 발행되어서 각 지역마다 배부를 해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므로 불가피하게 공보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지방지도 구독을 하고 일반 중앙 일간지도 구독을 해서 각 통반장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4만 1,000부를 1년에 2억씩 들여서 공보효과를 기할 수 없다면 이것을 바꿔보자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종로구의 가구수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세대

수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7만 1천 가구 정도

○安載弘委員 7만 세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구 한 세대당 1부씩 넣는다고 그러면 한 7만 2,000부가 필요하겠죠? 보관함에 넣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7만 2,000부를 만들자 이겁니다. 7만 2,000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하되 기왕이면 지질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색도를 2도 정도 해도 괜찮거든요. 중구 반상회보나 은평 반상회보를 보면 우리처럼 을 칼라가 아니더라도 홍보효과가 충분해요. 그리고 요즘은 통합선거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장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반상회보에 대해서. 그렇다면 2억 들여서 4만 1,000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같은 돈을 들여서 7만 2,000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먼저도 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광고를 넣든지 대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공공광고를 넣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 관내 안에 SK나 현대나 삼성이나 한국통신이나 좋은 회사들이 많다 이거죠. 따라서 그 회사들의 협조를 얻어 상업광고나 공익광고를 실어주면 발행 부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방지를 구독하면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金正大委員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도 시정이 되고 보다 많은 부수가 각 세대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구정의 홍보비용은 4만 1,000부를 발행할 때보다는 50%를 잡는다 하더라도 6만부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安載弘委員님 말씀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50% 정도밖에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들어가는 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청에서 광고유치를 해서 하는 것을 옛날에 조사를 몇 개 구청에서 해서 제가 조

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광고효과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미미했었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은 1억 9천에서 1,800만원 정도 줄여서 1억 7,5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安委員님의 의견을 좋은 의견으로 알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가능하면 지질이 너무 호화스러워요. 요즘 무슨 쇼펍 안내하는 가이드북같이 칼라 풀하게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생용지나 2도 인쇄를 사용해서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는 종로구 관광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보셨나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安載弘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께서 미국의 자매결연 도시인 랭커스터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다고 그러는데 약 1,000부를 제작했다고 그러네요. 종로구 서울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발행하셨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安載弘委員 사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千相旭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로를 문화일번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된 관광안내지도 하나 없어요.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지도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내지도 없고 그냥 각 고궁 명소에 한글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왕에 소관 업무가 기획에 뛰어난 金周會 課長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종로구 관광지도를 내년에 5천 얼마가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실 때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지 중에 영문이나 일어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호텔 로비에 가면 거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타어완의 소책자도 있고 미나또 이너미니스라는 안내책자도 있습니다. 혹시 미나또 이너미니스라는

안내책자 보셨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전에 위원님께서 저를 주셨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을 보셔갖고 종로 그러면 문화일번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노상 하시는 말씀이 종로 문화일번지에 제대로 된 안내지도라도 하나 만들자 하는 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이런 데 예산을 쓰신다면 어느 의원님들도 거의 반대는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고 한국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찍힌 영문이 틀리지 않다면 내년에는 좀더 좋은 지도를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화진흥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 헷갈리는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주민에게 예산이나 예산의 집행상황, 결산의 내역이나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신 실적이 있는지 만약 공개하신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2회 공개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저희가 1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구보하고 종로사랑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개를 했고 매년 공개를 한번씩은 다 했습니다. 이것이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편성된 내용을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5월경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그 결산공개는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두번 다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최근에 '98년 12월 31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거의 모든 행정기관은 적어도 구민에게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앞으로 추세가 심지어 서울시장이

판공비도 공개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머지 않아 판공비를 공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더 주민들의 능동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시설이 있거든요. '99년 10월말 현재 후생복지, 효자동 사랑방은 매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 후생복지시설 중에서 효자동 사랑방은 2군데로 나뉘져 있습니까? 하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 각종 전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여기서 말하는 효자동 사랑방은 전시물을 전시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매점을 말하는 건가요?

○總務課長 李炳滿 매점을 말하는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여기 후생복지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관 맞죠? 후생시설 운영규칙이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 시설운영 총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규는 종로구청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후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에 후생시설 이렇게 해놓고 「후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2, 3, 4 해서 4에 「기타 후생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 망원경이 그러면 적어도 이 내규에 의하면 운영규칙에 의하면 후생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 자판기 또는 효자동 사랑방 매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어쨌든간에 이 후생시설운영규칙을 의회에서 또는 본 위원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후생시설이라 함은」 하고 내규 2조4호에 「기타 후생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팔각정 망원경은 적어도 구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후생복지회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지 여러분들 직원 스스로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적어도 팔각정 망원경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못된 부분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는 또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해주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팔각정의 망원경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여러분 후생복지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진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팔각정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입찰에 의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 구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팔각정 망원경 시설을 할 때는 목시적인 의미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어떤 홍보한다고 말씀드리면 우습겠지만 그러한 사전적인 절차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별관을 들어서면 은행과 같은 화사한 분위기와 아주 최신식의 화장실 설비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인이나 본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옥상방수에 2,500만원과 3층과 4층의 아스타일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텍스 교체하는 것 또는 민원실 보수공사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들이는 이 건물 자체가 소유권이 구청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제1별관은 소유권이 완전히 서울시로부터 이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민원인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개수하고 보수하고 보완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은 하나 하루속히 서울시하고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제1별관에 대한 소유권을 명명백백하게 종로구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해도 적어도 의회에서 책임추궁을 당하거나 어떤 불필요한 예산의 추가적인 낭비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安載弘委員 지적 사항이 타당합니다.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서울시하고 이전관계로 여러 번 충돌이 되었고 다만 시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기울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 이전할 때 저희들이 동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하고 저희하고 직원끼리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한테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고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만약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소송을 해서라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

습니까? 소유권이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불사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유지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홀드 시키고 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소방본부하고 함께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내년 하반기요? 오늘 점심을 먹고 조계사를 들어갔더니 가장 좋은 말이 부처님 옆에 써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나' 그렇게 묻고서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의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국장이나 李炳滿 課長은 승진해서 임지가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행정관리국을 감사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서 수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신있게 설사 갈 때 가지더라도 적극적인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劉燦鍾委員께서 전화통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조달청에서 기기가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납품되는 과정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내선이 1,500선에서 2,500회선으로 1,000회선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바꾸면 劉燦鍾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전화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사실 객관적으로 종로구에 민원전화를 걸거나 731로 시작되는 전화를 걸게 되면

거의 80% 이상은 통화 중이에요. 2,3분 이따가 다시 걸어도 통화 중이어서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속히 교체하셔서 주민들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잠시 내가 머리가 아파서 열 받아서 밖에 나갔다 지금 들어오니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공공근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작년 10월부터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총무과에다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께서 책임 추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직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각 동별 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혜화동에 12명으로 되어 있고 명륜3가동에 7명으로 되어 있고 또 각 다른 동도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이 통계가 맞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우리 위원들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하고 같이 동감사가 끝났습니다. 지역 동감사 때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혜화동의 현원이 13명으로 받았습시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4명, 기능직 1명 해서 13명을 보고 받았습시다. 동사무소에서 현원을 거짓으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이 통계가 안 맞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委員님! 변명이 아니라 맨 앞에 보면 저희에게 감사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하라고 왔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 동별 직원 현황은 '98페이지 맨 위에 10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

마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현재로 했기 때문에 시점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이것은 언제를 시점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줄 아십니까? 11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준 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1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잡아서 준 거예요. 지금 동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總務課長 李炳滿 委員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 현황은 이렇고 혜화동이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그래서 소속은 효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그쪽에 특별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맞습시다. 그것은 특별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원 소속으로 저희가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시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李東奎委員 특별근무자가 효자동에 있는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갔다

○總務課長 李炳滿 정상록 직원이라고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효자동 인원은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는 효자동이 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 부분은 현원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정원을 파악한 것입니까? 이 통계자료가, 한심합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예, 16명이 확실합니다.

○李東奎委員 16명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효자동에 17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 사람이 파견근무로 해서 혜화동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혜화동에서 보고해준 것은 13명으로 현원을 보고해줬는데 혜화동장은 위증한 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13명이 맞습시다.

○李東奎委員 제가 분명히 해화동장한테 물었습니다. 정원이 얼마이고 현원이 얼마고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파견근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두 사람 나와 있는 직원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아마 효자동에 있는 직원이 특별근무를 나갔는데 저희가 보내줬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인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명륜3가동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해보겠어, 명륜3가동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總務課長 李炳滿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7명으로 되어 있죠? 현원이 아까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명륜3가동이 지금 총 9명입니다. 왜 틀린 겁니까?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1명 왜 7명으로 보고해 놓고 9명입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총괄부서에서 지금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 인원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수발하고 19만 우리 종로구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서비스할지 암담합니다. 앞으로

○總務課長 李炳滿 명륜3가동에는 7급 직원 한 사람하고 방법원 한 사람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렇게 현 실태를 파악해서 기록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제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해화동도 14명인데 12명으로

○李東奎委員 12월 15일 현재 받은 거예요. 동에서 받은 것은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여기에서 특별근무하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원이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가있고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고 소관부서의 최소한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總務課長 李炳滿 명륜3가동은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기 때문에 인력이 적다고 추가로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李東奎委員 제가 어저께 현원 9명을 세워놓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통계자료도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동장이 위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동장은 분명히 선서할 때 거짓과 숨김이 없이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위증한 겁니다. 이것은 위증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있느냐라고까지 물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두 사람 나와있는 외에는 파견근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동감사를 할 때 委員長님! 속기록을 붙이든지 녹음기를 붙이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인지 자꾸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총무과 소관 두 사람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명륜3가동은 지금

○李東奎委員 정말 이렇게만 자꾸 꼬집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열 받칩니다. 열 받쳐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볼까요? 종로구민들한테 그대로 폭로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관리국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시정하고 뭘 잘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가서 자기 사업하랴 뭐하랴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는데 전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무슨 행정 수반을 하겠습니까? 종로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구요? 좀 이런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서류 수발해서 갖다주는 거나 인원 체크 해가지고 총괄표 갖다주는 거나 한심하고 한심 두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합니다. 委員長님! 이것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5분이고 10분 정회를 해서. 委員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회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님이 정회를 요청했

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會議中止)

(16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감사 자료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님에도 행정관리국 감사자료로 제출하였고, 또 **李東奎委員**이 지적할 때까지 이걸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작년 10월에 업무이 관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고, 양국의 관계국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별 동별 직원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또한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관리국장은 이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연번호가 적힌 자료제출 목록을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분명히 정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동별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 요원들이 동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으로 특별근무 명령을 낸 사항에 대해서 비고란에 표시를 했었더라면 **李東奎委員** 말씀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성의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양해하시겠습니까?

○**李東奎委員** 예, 양해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구요 정중하게 엄중 경고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사과 말씀해주신 우리 국장님께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전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

류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참 상당히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회의 기능 역할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접해 봅니다마는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단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관계되시는 계장급 또는 우리 과장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05쪽에 각종 공공요금 사용현황 및 집행내역 '98년과 '99년이 같이 여기에 실려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사용한 것하고 '99년도에 지금 내역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炳滿** 전화요금 관계는 '98년도부터 '99년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에서 쓰는 일반전화나 유선전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한두 대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화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일반전화로 핸드폰 관계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 이 전화로 하게 되면 핸드폰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앞으로 행자부 단일행정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 좀더 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중계기가 교체가 되면 바로 통제를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절약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전용회선 사용료를 보면 10월 현재까지만 보겠습니다. '99년 10월 현재로 나와있으니까 10월 현재가 '98년이 1,400만원인데 '99년 10월 현재가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600여 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겁니까. 600여 만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600만원.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느껴보고 전화를 해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劉燦鍾**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각 부서 별로 전화 한번씩 할 때마다 거의 90%, 80%가 통화중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부서별 지나가다 저희들이 잘 지켜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쓸데없는 전화를 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데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전화요금 관계가 '99년도에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니까 잘 귀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데 행자부에서 전국행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우리가 전국망을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행자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역을 뽑아보면 말이죠 전보다 나오겠습니다마는 핸드폰 요금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아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고성을 하고 수감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그런 고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동별 인구 현황 및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98년과 '99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鄭興鎭 區廳長께서는 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구로 살기좋은 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제 나름대로는 원인은 그

렇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동, 부암동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타 가회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꾸 도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역 변형이 되어서 이런 상가나 음식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무악동 같은 경우는 1만 5천 가구 정도가 증가되고 저희들이 기준을 도심재개발이라든지 특히 오피스가 복합건물 같은 게 들어서면 다시 증가로 반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3개동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평창동하고 혜화동하고 창신1동만 그렇고 나머지 16개 동은 전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호만 그치는 이런 운동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항상 부르짖는 돌아오는 종로로 될 수 있도록 좀 꾸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및 고충처리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가끔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익요원들의 물의 야기자,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탈 심지어는 강·절도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난해에 절도 혐의자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의 사기라든지 정신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개최해주고 정신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현재 우리 종로에 350명이 있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 속해있는 이 사람들이 물의를 야기하든 어쨌든 간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양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을 보면 구 지역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강사료가 5,947만 3,000원이 나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지급되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기초 정도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면 합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그 자치센터의 운영규정을 기본강사료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5,947만 3,000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를 한달에 한번씩 25일날 하는데 반상회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잘 안됩니다.

○**洪起瑞委員**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되는 반상회를 매월 하는 걸로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개 동에 한 통만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책을 내놓고 해야지 말만 25일날 반상회다 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도 개인적으로 반상회가 도심지역에서 운영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있다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부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행사부에서도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쪽 주민 관리의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우리가 안을 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우리 '종로사랑'을 1년에 한 2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로사랑'이 호별 다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반장들이 귀찮으니까 어떤 집은 대문 앞에다 두어 장씩 뿌려버리고 바람에 날려서 길거리에 지저분한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한 교양이 있어 가지고 완전하게 각 가정에 투입이 되어야지 사실 주민들이 보는 것도 불쌍사납고 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게시판에 구정 홍보판이 실립니다. 사진들이 실리는데 그 부근에 구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을 한 커트라도 실어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도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어느 게시판을 가든지 간에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사항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사진을 첨부하는데 그래서 다음달부터라도 꼭 게시판에 구의원의 동정 사진을 하나씩 꼭 실어주도록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구정 게시판의 일부분을 지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旅券課長님! 계시죠? 좀 물어보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셨는데 질문이 없어서 심심할 것 같아서.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국고에 예산 요청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旅券課長 黃義振** 이것은 '98년도에 IMF가 되면서 그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정원이 46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발급 건수

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줄었는데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부족분을 기왕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인원이 줄었다고 했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인원이 46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千相旭委員 우리 여권과가 말이죠, 굉장히 친절하다고 여권과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 좀 일을 잘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이 지금 22명이 아닙니까? 기능직은 뭘합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기능직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권을 접수하고 발급하고 제작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주로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기능직으로 지금 직급과 직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이 전부 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말이죠, 지금 우리 여권과에서 약 5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하고 그것을 국고에 전부 기속시키고 받아오는 것은 약 20%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20%를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하고 체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여권과의 정원을 늘려서 우리 인력풀에 빠져서 고통받는 많은 직원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80%의 막대한 수입을 국고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라도 우리가 도로 회수해서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요?

○旅券課長 黃義振 여권업무가 외교통상부장관이 취급하는 국가고유사무를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100% 지원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100%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대행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만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들 때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아니, 인원과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늘리지 않고 왜 줄이느냐 얘기죠.

○旅券課長 黃義振 전체 여권 발급량이 IMF가 발생된 이후에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여권 발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각 시도나 서울특별시 여권발급기관에 지금 지원되는 국고보조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千相旭委員 여권 발급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호전되면 또 늘어날 건데 그때 가서는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 자체를 늘려놔야만 여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기능직 22명을 이것을 우리가 현직으로 말입니다. 전환을 해서라도 우리 국가의 법을 믿고 공무원에 입문했던 많은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될텐데 우리 종로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러한 어떤 의리가 없어보인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물론 저보다도 안타깝겠죠. 동기들이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 다리 떨어져있고 직접 관리하고 아끼던 부하직원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앓을 자리가 없어서 서성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감축에 따른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권과의 인력 감축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은 승진도 안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난번 부족예산은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여권과를 찾는 사람은 종로구민은 2%에 불과하다고, 다 서울시민이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은 감수할 수 없다 해서 시장님이 흔쾌히 그 부족분을 지원해줬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인력풀의 직원들을 구제하는 방안

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6급들이 몇 분이 구제될 수 있었다는
게 몇 명 안되지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현재. 발령받지 못한, 인력풀에 빠
져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재 처음에는 209명과
정원상으로는 140명이었습니다마는 1차, 2차 해서
그런데 이제 자연감소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지금 6급은 한 6명 있고 그 다음에 7급, 9급이 10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기능직
인데요 한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
자는 아닌데요.

○千相旭委員 기능직이 53명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기능직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앞으로 3년 2002년
까지 과원은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千相旭委員 2002년까지입니까? 2000년이 아
니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난번에 3년간이었으니
까 2002년까지입니다.

○千相旭委員 2002년까지. 그러면 자연도태하는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면 거의 구제될 수 있겠
네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구제가 됩니다. 현재
그 T/O가 모자라서 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되어서 6급이 금년에 만약 6명이 나가게
되면 정년이 되어 가지고 6명이 나가버리면 그 6
명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승
진자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적과장이 승진을 하고 승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되면 풀에 있는 6급 인력도 구제될 수 있
습니다.

○千相旭委員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법을 믿고
61세가 정년인줄 알고 들어왔던 공무원들이 피해
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
시고 그리고 제가 승인1동에 동행정감사를 나갔

습니다. 존경하는 金正大委員님께서 양해를 해주
셔야 됩니다. 제가 발언하는 가운데에서 실수하
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李東奎委員님도 공히
이해해 주십시오. 승인1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지
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辛
承澤 洞長인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열
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야말로 입안의 혀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동직원
들의 호소가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고 또 두번째는 행정차량이 없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옆 동의 창신3동 것을 빌려쓰고
있는데 같이 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교통수단이 안 좋을 때는 참 고통받는 경
우도 있고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시
설이 있는데 체육시설물 중에서 런닝머신이 없어
가지고 특히 여자분들이 런닝머신을 많이 이용하
기를 원하는데 그 기구가 없어서 체육시설 이용도
가 낮고 도서실 이용도가 높다, 더군다나 그 주변
에 밀리오레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해요. 동대문
운동장 건너편에. 그리고 경마장 마사회에서 무
료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레저관계 모든 취미교
실을. 그래서 그쪽으로 주민들을 뺏기고 나니까
강좌를 개설해도 지금 9개를 개설하고 있는데 수
강생이 없다 그래서 강사도 고통스럽고 동장 입장
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더라고요. 참 좋
은 건물을 지어놓고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용하는 분들은 적고 건물은 관리하자니까 계속
비용은 들어가고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
로 구민회관이 그쪽에 있습니다. 또 여성복지센
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동청사가
신축됩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이 태산같습
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사회나 밀리오레라는 백화점에서 손님 유치
를 위해서 무료강좌를 계속 했을 때 과연 돈을 내고
와서 수강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민회관이 엄청난 시설을 구비해 놓고 개관을 했을 때 동 자치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불과 2,3분 거리에 있는 구민회관으로 다 몰려들지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동 자치센터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당초의 승인1동 청사는 金正大委員님도 계시지만 많은 노력으로 원래 동 사무소 청사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크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능전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청사가 들어가고 남은 사무실은 소위 임대사업용으로 하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동청사가 함께하는 복합건물이다 해서 했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행정의 변화도 엄청납니다. 갑자기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복지시설 기능으로 하자 했는데 우리 千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 생기고 여성복지관이 생기고 특히 지역적으로 밀레오레라고 인근에 있는 백화점에서 주민들에게 이용에 편리한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좌를 만들었을 때 이용자가 없으면 과감히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그러한 시설물을 놀리지 말고 수익에 이용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시설물을 임대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임대사업으로 필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임대했을 경우에 투자에 따른 수익성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할텐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임대는 저희들이 아마 위

치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경쟁입찰해서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는 충분히 수지타산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행정차량은 왜 회수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희들이 지금 시험기간입니다. 동행정 기능을 축소하는 마당에 지금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를 다 정원을 줄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화물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러한 차량을,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차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전부다 동기능이 전환되면 아직 어떠한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차량을 전부다 빼라 행사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있다면 그 차량들을 다 빼야 할 것입니다. 굳이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6월달에 큰 전환이 오는데 한 100여 명의 인력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토목과나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구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만약 주민에게 전화가 온다면 자기 소관이면 현장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차량 지원체제가 몇 개 과에만 있지 토목과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량들이 토목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은 안 사고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지원을 직접 해주자 이제까지 행정에 없던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앞으로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모든 민

원업무가 인감, 주민등록, 복지 외에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거리를 직접 구청으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세가지 민원 외에는. 그렇다면 행정차량도 없어지는데 안내받을 길도 없고 직접 바쁜 시간을 이런 원거리를 와야 되고 하는 불편사항이 계속됐을 때, 또 그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은 약 40%가 줄지 않습니까? 그 준 인원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또 일선의 동사무소, 송인1동의 경우에는 현재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정식 직원이 8명이고 고용직 2명 해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용직 2명은 사무직에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빼버리고 동장하고 또 6급 주사 1명을 빼고 나면 6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휴일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쁘니까 휴일도 없이 근무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원인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행정의 어떠한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행정차량을 가지고 모든 봉사자들을 행사장에 모셔가기도 했는데 송인1동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요금을 지불해가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현재는 2개동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전 19개동에 공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내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차량과 기사는 놔둬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나오면 그때 정식으로 기사 1명, 차량 1대를 정식으로 놔두게 되고 아직까지는 지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중이죠.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행자부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좋은 시설로 인해 편의를 제공받지만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행정차량이 없음으로 해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구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공무원들도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시설물을 조금 더 들여서 런닝머신인지 그것이 있어야만 완전히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겁니다. 절음발이처럼 그게 됩니까? 그것을 보완해줘야 되겠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겠는데요. 런닝머신이라는 기기가 그렇습니다. 일반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내는 체육시설에도 런닝머신은 시간을 제한하더라고요. 오래 뛰면 바로 모터가 나가는가봐요. 저희 구청에서도 런닝머신을 놔두면 바로바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송인1동도 전부 공개되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갖다놓으면 바로 고장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기능을 똑같이 체력을 증강하는 종목이 뭐냐 하면 자전거다 그래서 자전거는 고장이 안 나니까 자전거로 대체하자 해서 한 건데 주민들이 아마 요청을 하실 겁니다. 왜 체육시설에 런닝머신이 없느냐, 고가면서 그것은 특별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몇 시간 뛰겠다는 사람을 제한해서 쉬었다가 다시 뛰고 이렇게 누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바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종목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 외에는 오래 쓴답디다. 일단 기능을 여러 가지 시험단계니까 시설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더 부탁하겠는데 여권과가 굉장히 업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원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현재는 IMF로 인해서 여권 발급의 양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여권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 47명 인원으로 늘리도록 통상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요청을 하세요. 2000년도부터는 여행자가 급증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인원을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7,8명 늘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 수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0년도 6월 이후에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몰려드는 인원을 수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시라 이겁니다. 여권과에 정원 늘리는 것은 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권에서 생긴 이득의 80%를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오자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질문을 빨리 마쳤으면 했는데 千相旭委員께서 우리 승인동청사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조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 李東奎委員이 말한 차량 숫자가 틀리다는 것, 방금 전에 선배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행정차량인데 분명히 여기 19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차한 것도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폐차한 것은 기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진행 중인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아직은 구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19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동이 19개 동입니다. 왜 승인1동은 자치센터라고 해서 차량을 뺏어가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자치센터라는 미명 하에 상당히 우리 승인1동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차량이 지금 여기에 19대가 있고 19개 동인데 승인1동 것을 제일 먼저 뺏어갔습니까? 그러면 어느 동인가에는 2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 당시에 행정차량은 있고 기사는 전부다 승인1동도 없고 명륜3가동도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거기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거기는 지금 활용을 합니다.

○金正大委員 거기도 자치센터라서 기사가 없다면서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기사가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승인1동하고 처지가 똑같은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런데 공무원이 그 차량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金正大委員 이것봐요. 국장님! 내가 이 차량 때문에 아마 국장님한테도 5번을 얘기했을 것이고 과장님한테도 1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승인1동 구의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평등한 정책시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19대로 있지 않습니까? 인수로 봐도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청운동에다가 이 차를 갖다 줬다고 그래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제가 아까 千相旭委員님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고 하니

○金正大委員 저도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의 이야기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가 티코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金正大委員 글썄, 그것은 국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지금은 감사시간입니다. 지적을 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19대가 있는데 어느 동에 2대가 있느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승인1동에서 1대를 갖다가 청운동에 갖다줬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하면서 굉장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19대인데 어느 동에 2대가 가 있느냐고 내가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폐차처리 진행 중에 있음

니다.

○**金正大委員** 아직 폐차는 되지 않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서 보고 올 테니까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곳은 청운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명륜동 것은 왜 안 뽑아가고 우리 것만 뽑아갔어요? 그러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명륜동에서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송인동에서는 직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명륜동 직원들은 그 차량을 이용한다고 그랬고 송인1동 직원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선 빼서

○**金正大委員** 차량 가져간 날부터 계속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승용차로는 도저히 못 나른다, 불우이웃돕기 라면을 누가 동신교회에서도 50박스 가져가라 어디 몇 박스, 그것을 전부 용달로 가져오라고 했다면서요? 총무과 동정계에서 그러면 용달비를 주겠다 그것이 아마 7,8차례가 됩니다.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폐차 처분이 되었든 어쨌든 이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의원인 내가 몇 번을 줄랐던 것인데도 여기는 19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끌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폐차를 아직 안 시켰다면서는요? 폐기 대기하고 있다면서는요? 뒤에 앉아계신 직원이 한 얘기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는데요. 폐차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조회해서 우리 폐차 직전에 이런 차량을 쓸 부서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조회한 다음에 우리가

○**金正大委員**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밀리오레인가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치센터로, 시범 동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자치센터로 된 곳은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서민촌이기 때문에 5,000원을 받아도 50명 있다가 20명으로 줄어든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니까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부다 서부다 중부다 그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여담 삼아서 하는데 고급 운동장은 전부다 중부 청와대 근처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뛰어놀고 하는 데도 복잡해서 사람이 미어저요. 그런데 돈을 1만원씩 받는 바람에 전부다 공짜인 곳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송인1동 주민들은 여태까지 세금만 냈지 복지 혜택이라고는 노인정 하나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로 20억, 30억씩 몇 개 동네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 그것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 밑에다가 8억 넣어가지고 38대 주차장을 만들어 놔어요. 8억이면 대당 얼마씩입니까? 이래서 내가 이것을 이 기회에 감사시점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고 빨리 차를 한 대 갖다 놓으세요.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이나 이분들 정말 너무해요. 왜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이익을 보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운동하는 데는 부자촌은 돈 10원 하나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돈 1만원씩 내면서 다른 데 공짜로 하는 데로 흘러가게 해서 이제 국장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를 놔서 어찌구저찌구요? 우리 송인1동이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차를 내년 7월까지 전혀 못 보내 주시겠다고 하시면 송인1동은 19개 동에서 아주 서러운 동네가 됩니다. 그러면 19개 동 중에서 폐차처분을 했으면 2개월씩 차를 돌아가면서 사용하세요. 공정한 집행을 해줘야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2월달에 새 차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송인1동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진짜 송인1동 주민들 구청장실에 쳐들어오게 해볼까요? 자치센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왜 이런 불이익을 주민들이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명륜동은 그냥 있다고,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안되지. 집행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꼭 차서 사람이 밭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 그런데 1만원씩을 해가지고 20%인가 10%인가를 또 떼어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있어요. 강사료가 다른 동사무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내가 쪽 훑어보고 있는데 아까 千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감사는 한 열흘정도 해야 됩니다. 3일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이것저것 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기 그런데 1월달에 조치해 주시겠다고 하나까 한 1개월 남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좀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내용인데 그 차 기름 값 아끼고 운전수 어찌구저찌구 하면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기배에 370만원, 또 220만원, 청장기배 할 때는 꼭 200만원이 넘어갔어요. 축구 구청장기배 할 때 378만원이 나갔는데 이 378만원에 대한 지불내역은 어디에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 수천만원이 됩니다. 몇 백만원짜리 다 썩은 차는 뺏어가면서 말이야 이것이 감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8급, 9급 직원들한테 사정하면서 차달라고 10번도 더 했어요. 여기에 보면 4,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에 378만원, 이 378만원이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때 378만원이 되어 있고요. 탁구 시장기배 때 또 100만원이 나갔어요. 378만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78만원을 운동장에다가 쏟아부은 겁니까? 이런 운동은 고급 운동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우리 종로구에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매년 저희가 378만원을 주

○**金正大委員** 누구를 줍니까? 준다는 것이 됩니까? 회장을 줍니까? 총무를 줍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배드민턴협회에 지원을 하고

○**金正大委員 李秀傑** 課長님은 局長님보다 잘 몰

라요. 문화진흥과로 이관이 된 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안되었는데 잘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산 절감과 같은 돈이 지불되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골고루 평등하게 가진 자보다는 덜 가진 자를 위하는 것이 평등사회가 지향되는 겁니다. 삼백몇십만원씩 운동장에다 내버리면서 그래서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일반적인 행사를 하다보면 최소한 구청장기로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가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것에 한 30%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우리 예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이 안되면

○**金正大委員** 대충 알아듣습니다. 두 마디를 하면 저는 네 마디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과거 임명 청장 때하고 지금 선출청장 때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에 임명청장 때도 이렇게 37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맞습니다. 오히려

○**金正大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좀 잘해보자 해서 민선청장으로 바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복지는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金正大委員님께서 끼니를 거르는 법정 생활보호자에 대한 복지도 있습니다. 생활은 낮지만 생활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지원이 바로 이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그런 설명은 이따가 우리 들이 있을 때 정답게 해야 할 이야기고 370만원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전체 행사비가 1,000만원이 드는데 그 행사비 중에서 약 3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 배드민턴 그 행사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어쨌든 그 내역을 빼서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탁구나 테니스, 테니스장이 우리 종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하나 삼청동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테니스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金正大委員** 이것을 왜 부자촌, 청와대 옆에 갖다놨습니까? 서민들은 그런 고급운동 하면 안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동부지역 어디라도 좋습니다.

○**金正大委員** 동부지역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테니스 좋습니다. 테니스 이것도 돈이 많은 분들이 하는 운동인데 이백팔십몇만원씩 쏟아 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시 연합회장배도 20만원 촌지를 한 것, 서울시장기 60만원은 다 뭐예요? 테니스 말입니다. 빨리빨리 답변을 못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하나하나 세부 사업별로 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대회는

○**金正大委員** 답변을 빨리빨리 못하시면 구의원 앞에 테니스대회 해놓고 100만원 이것은 현찰로 촌지를 낸 겁니까? 이것은 뭐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金正大委員** 연합회장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축구연합회 다 해주는데 왜 테니스를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이 나옵니다.

○**金正大委員** 이것은 부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는 똑같이 빼야지 왜 한 군데만 빼와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1월달에 차량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보니까 어떤 데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것 골고루 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위 칼자루 잡은 사람이 그건 이렇게 봐서 감으로 느껴서 여기는 이거다 장으로서 요령을 가지

고 필하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주는데 1인당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趙朝翼 課長 계시면 좀더 따지겠는데 문화진흥과로 합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아까는 1,000만원 든다고 썼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데마다 1,000만원씩이면 30억이 쏟아지네. 종로구에서. 지금 30개가 넘지 않습니까? 배구, 게이트볼, 볼링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데는 운동이라는 것은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운동을 못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유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풍부하게 지원을 하면서 왜 주민들이 어찌고 저찌고 사는 데는 자치센터 지어놔 가지고 말이야 주민들이 집수리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구청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직원들이 장소를 비워놓고 책상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여기 와서 덜렁덜렁 어딘가 해당부서에 들어가서 끼어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건축과에 갔다가 주택과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사람 미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장독대 하나 수리하려다가. 창신동, 송인동은 그렇게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집 자체가 작으니까. 21평밖에 안되니까 집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참 모순이 있는 것이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감원을 시켰다면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받았던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찾아와라. 이것을 행자부에 보고를 하세요. 도대체 처음에는 동사무소 해체론이 나왔다가 이제는 갑자기 급전되어 가지고 기능전환이라고 뭐 기능이 어떻고. 어떻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던 것을 구청으로 쫓아오게 하는 것이 기능전환이예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왜 묻습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까? 법이 필요 없어요. 경우가 좋은 사람은. 각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너무 무시해요. 이 묻는 것 하나하나 전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성을 다해 가지고 묻는데 아주 정성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해요. 동문서답 식이고. 저기는 얼마 줬는데 여기는 얼마 줬다 이것도 모순이고 이것을 쭉 보면 참 잘못되었습니다. 1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라고 나옵니다. 9월에서 11월이 나오는데 56명인데 720만원이 강사료로 나왔어요. 이것은 고급 운동입니다. 나도 수출품 전문업을 한 20년 하다보니까 골프를 합니다마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인데 참여인원이 56명인데 72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나만 구의원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도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이 720만원 나간 것 한마디 해보세요. 골프 56명에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님이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차밍이라든가 스쿼시라든가, 스쿼시는 귀족이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민이 계층이 다양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행정도 골고루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金正大委員 물론, 되었습니다. 720만원에 대한 강사료인데 56명을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세란골프장에서. 첫번째 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 모였습니다.

○金正大委員 어딴니까? 무슨 동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무악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金正大委員 골프연습장입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임대료 윈도우 골프장입니다.

○金正大委員 종로구에서 건립한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다가 세를 내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그런 셈이죠.

○金正大委員 그 달의 레슨비를 대납해준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다. 수강자들한테

○金正大委員 이렇게 모집을 하는 공고를 언제 어디다 냈습니까? 구의원인데도 이것은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겁니다. 어디다 공고를 냈고 어디다 모집을 했습니까? 지금 증거를 가지고 온 직원은 어느 과 누구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팜플렛입니다.

○金正大委員 저는 구의원이지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듣기도 나는 처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루는 건 우리 구의원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이것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게 두번째로 금년에 하는 것 같은데

○金正大委員 저는 작년에는 시민행정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민에서도 골프를 했느냐고 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산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720만원, 불량이 168만원 이렇게 강사료를 주는데 왜 내가 흥분을 했느냐면 자치센터라는 미명 아래 그 불쌍한 산동네 셋방 사는 사람들 1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것도 1,000원씩을 빼서 9,000원씩을 가지고 강사료를 때우는데 돈을 받다보니까 사람이 자꾸 나가요. 사람이 20명 이하가 되니까 강사들이 자꾸 떠나려고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공짜입니까? 자치센터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동장이나 서무주임, 동직원들한테도 숫자가 적으니까 돈 안 받으면 안되느냐, 우리는 그러로 간다. 그러니까 행정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차량 뺏어가버려, 인원 뺏어가버려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무원칙한 부분도 있는가. 이 운동이라는 것은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좀 고급스러운 것은 우리 테니스장이 삼청동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만든 거예요. 가보면 틀림없이 전직 장관이나 고급스러운 분들이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골프는 그것보다는 더 약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5,900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과장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가진 분들보다는 좀 덜 가진 분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아직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전부다 시원치 않네요. 골프 배우는 사람들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명세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370만원씩 운동장에 누구를 갖다줬다고 했다가 촌지를 해준 건지 뭘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생활체육인구가 참 많습니다. 이 생활체육단체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한달에 두세번씩 구의원들한테 통지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늘씬한 분들이예요. 다 환경이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 안 가기로 작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여기에 나오는데 249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우리 종로구 전체에 자전거 단체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자전거 송인1동, 송인2동으로 시작되는 좀 오래된 겁니다. 공진규 씨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이 서울시 돈을 써야지 왜 구청에서 60만원이 나가는지 구청에서 6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제3회 종로구청장기 자전거대회는 구청장기만 갖다 걸어놓고 189만원이 또 나갔어요. 아마 동직원들이 일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동장 며칠 못 가서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우매한 짓을 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직원들을 500명이고 50명이고 이렇게 인원을 감소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면 우리 주민 모두가 종로구민이 아마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결국 그 직원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있던 동직원들이 여기

에 와있더라고. 명륜동이나 송인동에 있던 직원들이 다 여기에 있더라고. 상부의 지시만 받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는 아래의 진짜 실제 일반 주민들의 뜻이 상달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행자부차관한테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강력히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공무원으로서 알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金正大委員** 예산서를 보니까 전면 실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현재 추진이 되는 걸로 계속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관계공문이 내려오고 계속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金正大委員** 어쨌든 국장님이 시키든 행자부에서 시키든 송인동 주민들은 하라는 대로 해왔어요. 뺏어가고 뺏어가고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金委員님이 깊게 이해해주시고 해박한 지식도 계시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차량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바로

○**金正大委員** 몇 번씩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8급, 9급 직원들한테 귀에 갖다대고 그대로 전달이나 하는 그렇게 관심도가 낮다 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실제 한번 나가보시고 어려움이 있나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과장자리나 국장자리나 계장자리를 지켜나가주셔야 아래 8급, 9급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좋은 모습을 배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 정말로 질의 잘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같은 대회인데 구

청장기 대회는 100만원 단위가 넘고 또 일반 배드민턴 대회는 10만원 단위로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도 어긋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청장님의 선심성 지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고서 다른 데에는 지원해주면서 강사료도 파행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조금 전에 우리 金正大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3쪽에 배드민턴대회 378만원 지출된 것과 그 다음에 탁구대회 220만원, 테니스대회 283만원, 축구대회 378만원, 게이트볼대회 220만원, 볼링대회 252만원, 자전거대회 189만원, 태권도대회 478만원, 등산대회 252만원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품의서와 영수증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8년 '99년 구 직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골프 720만원이 월 수강 강사료로 2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출된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강체조가 132만 5,000원이 월 수강료가 지출되었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스퀘시가 168만원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도 같고, 게이트볼도 273만원 7,000원 그것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에서 골프사업 4,5,6월 해서 690만원, 테니스, 배드민턴 267만원에 대한 자료를 그렇게 관련자료와 강사료 지출 증빙서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문화의 집' 추경예산 1억 9,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집행한 걸로 아는데 그 담당과장께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집행한 내역과 이게 金正大委員 승인동 동사무소에 시설이 되죠? 잘 아시겠지만 승인동이 사무실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 교부금을 포함해서 '종로 문화의 집'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문화의 집'은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동 4층, 5층에다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국비 1억 9,000만원과 지난해에 우리 구비 1억 9,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은 하지 않았고 내년 1월 중순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1동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기존의 공공건물 120평 이상의 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상청부지하고 여러 곳의 건물을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安委員님 말씀 요지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계비가 들어가느냐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샘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2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의 내장과 시설비입니다. 무슨 비디오파견지 시설비입니다. 처음에 저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용이 많이 드느냐 했는데 그 사양대로 우리가 정부의 사양대로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첨부된 당초예산이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에 그 내부 설치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지금 평창동 동사무소는 완전히 비가 새서 짹짹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동에 새로 지은 건물에 새로 3억 8,0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 승인동의 金正大委員님이 로비를 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가 1억 9,000만원에 구비가 1억 9,000만원 해서 50%씩 투입을 해서 결국은 승인동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내지는 문화의 집이 되겠네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安載弘委員** 예, 공정대로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

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자산취득비가 10억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먼저 우리 **安載弘**위원님! 지난번에 자산취득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300여 종이 되는 컴퓨터 PC부터 해서 각종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지금 일부는 조달이 되어서 검수를 받고 있고 12월말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安載弘**위원 12월말까지요? 그러면 지금 1월달에 우선 시험운행을 하시고 2월 초순에 개관을 하실 예정이시죠? 아무튼 구민회관은 구민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염원사업이니까 좀 잘 관리하시고 잘 감시하셔서 좋은 시설로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예, **李東奎**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위원 **李東奎**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安載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安載弘**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로 앞전에 질의하신 **金正大**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핵심을 찌러 주시고 정곡을 찌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서두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각 동별로 행정차량이 19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구의원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대가 증발되었다구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동행정차량이 사직동에 있는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주민자

치센터에동에 옛날에 있는 차량과 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전부다 감축해서 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는 있고 차가 고장이 나고 낡아서 못 쓰는데 서로 고집할 게 아니라 차량이 있는 곳으로 기사를 한테 보내주는 게 원활하다고 해서

○**李東奎**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그대로 현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19대라고 적어놨어요? 동별로.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동에 차 한 대씩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동사무소가 현재 19개로 지금 한 대씩 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李東奎**위원 그러면 승인1동 것을 빼가지고 사직동에서 쓴다면서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런데 한 대는 폐차가 되니까

○**李東奎**위원 그러면 폐차 직전이면 폐차 직전이라고 기록을 해놓든지 해야지 19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내놨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정수가 그러니까

○**李東奎**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19대로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연속해서 계속 묻습니다. 부서별 우편물 반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뭔가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지금 노력하고 움직이느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만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훑어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무슨 예비군 편성 이런 공익근무요원 업무분담 사항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을 넘겨보니까 금년도 '99년도 등기우편물 반송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10월 현재 18.69%입니다. 하나도 노력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노력한다 노력했다 달라질 것이다 달라졌다 하나도 안 달라졌네요. 보니까. 답변해보세요. 답변하실 얘기 없어요?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든 자료가 세무고지서라든지 영장이라든지 공적 증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李東奎委員 과장님!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다른 타지역 세무과가 가장 많이 우편이 반송되는 구청에서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실 거예요? 다른 답변을 해보세요.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개선이 상당히 힘든 분야입니다.

○李東奎委員 개선이 힘들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힘들게 사셔야 되겠네. 우리 과장님도 힘들게 사셔야 되겠어. 힘들다, 노력도 안 해보고 노력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부서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사람들이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편한 부서예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거를 쥐보세요. 예산 낭비만 다해놓고 엉뚱하게 바가지가 깨져 가지고 항아리가 깨져서 똑같이 밑바닥 뚫어진 것처럼 물만 갖다 붓지 개선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단니까요. 이 한푼한푼의 돈들이 얼마나 소중한 돈들입니까?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이 사항이 주소라든지 물건지라든지는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편료 관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2월 3일날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0일날도 간부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각 실·과장, 동장들한테 직접 거기에서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아까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달라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됩니까? 이게 기본틀입니까? 영등포구에서 문서 몇 개 뽑아준 것 그것을 가지고 자료라고 저한테 준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趙秀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병사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죠. 병사가 금년 7월 1일부로 각 동에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 병사담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병사 문제는 이리이러하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하느냐 그래 기본틀을 만들어놨다 그 기본틀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고요? 공익근무요원 업무분담 해갖고 명단만 쪽 해놓은 것이 기본틀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趙秀完 이것이 전에는 각동에 나가있던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그것을 전부 집합관리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병사계에서 동담당을 쥐 가지고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직접 전달하게끔 체제를 바꾼 겁니다.

○金正大委員 안되겠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98, '99. 10월 현재로 등기우편물 발송 반송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서류하고 증빙서류 싹 가져오세요. 자료 신청합니다. 즉시 가져오시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가져온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문제가 또 나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우리 지역신문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동결시켜서 삭감시켜 버립니다. 없앱시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렵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李東奎委員 만일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의논을 해 봐가지고 연락을 주셨다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안된다는 쪽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일단 상의를 드러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러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관한 문제는 꽤 신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이지만

○**李東奎委員** 지역언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李東奎委員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李東奎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어느 특정인이 무슨 일이 했다고 뻑쓰면 바로 실어줍니다. 그 예가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동부지역에 특히 동부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지형상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 고지대에다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목이 터져라고 수도 없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장한테 가서 사대질도 해가면서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모 광역의원께서 본인이 도시가스를 넣었으니 신문에 실어주십시오 하고 신문사에 보내니까 신문사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실어 가지고 지역에 흘러나왔을 때 그 내용을 아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신문이냐고 하더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신문 발행의 목적에 위배될 때는 저희들이

○**李東奎委員**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죠. 여과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특하면 지역의 원들한테 으름장이나 놓고 그것도 언론사라고 말이죠. 또 정치기사 면이나 툭툭 싣고 여기 19명 종로구 전 구의원들께서 아마 이 지역신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도 지역신문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일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정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한 업체만 뒤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검토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1년이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 金正大委員님이 짚었습니다. 때만 되면 조금 실어주는 척하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우편물이 오는지 아세요? ‘무슨무슨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신문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반 주민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더니 의원들은 신문사에서 편지가 와 가지고 평소 로비를 많이 만나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됩니다. 빨리 없애시다. 없애는 것으로 하죠. 생각만 해봐서 될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조정해서 서울시부터 우리 자치구까지 통 털어서 하나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발행부수를 더 늘려서 해도 예산이 더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무조건 검토로 끝난다?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지금 현재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 다음에 117쪽에 44번 총투자사업비 예산현황,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의 총투자사업비입니까? 무슨 투자사업비 예산이예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총투자사업비가 구비에서 투자사업비, 도로 뭐 이런 하수도 사업비

○**李東奎委員**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표시를 해줘야지 기획예산과 총투자사업비입니까? 총무과 생활투자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무슨 자료라고 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자료 요구 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그것을 쓴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아니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는 그냥 총투자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내죠. 무슨무슨 총투자사업비 이렇게 내지 절대 총투자사업비라고 안 내죠. 여기 나와 있어요. 기록에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수가 77건이 됩니까? '98년도, '99년도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총투자사업비 예산현황을 '98년도, '99년도 것을 그냥 그렇게만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총 현황만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공사 또 시설물 보수해서 작년 '98년도, '99년도에 투입된 투자사업비만 총괄로

○**李東奎委員** 구 투자사업비요?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또 반복이 됩니까마는 각 동별 소규모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축소내용은 토목과로 일부분의 자금을 유용시켜서 거기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유용을 시켰다고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성격하고 동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과 같은 내용입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작년에 IMF로 인해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의 전문 기술직들이 사업이 없어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투자 소규모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이 적다, 기술도 부족하고 예산집행 절차도 모르고 그렇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일부를 아주 급한 것은 동에서 하되 조금 시간을 갖고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 집행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아직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그때 제가 이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작년 예산심의할 때 저한테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토목과에다가 이것을 배정을 했다 그것이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 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토목과의 전문인력을 좀 쥐라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몇 사람이나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때 우리가 소규모사업

을
○**李東奎委員**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4억 정도 하는데 어차피 소규모사업을 제 기억에는 玄壽漢委員님께서 물으신 것 같아요. 소규모사업이 뭐냐, 동에서 한다 그러면 동에서는 뭐를 하느냐 뒷골목 보도블록 정비하고 하수도 정비한다 그러면 토목과의 예산이 IMF로 인해 전부 쥐었는데 거기가 100억도 안되는데 토목과 직원들 노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전부다 그쪽으로 전용해서 주차, 그때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토목과 예산에 충당해 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토목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넣어줬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소규모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고 동결되어서 조그맣게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토목과에서도 결국은 동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인데

○**李東奎委員**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실 것이고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목과장이 구속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을 썩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또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동 소규모사업을 대폭 줄여 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지역사업도 안하고 다 줄여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까마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의원 한 분 정도가 발의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을 짓고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전체 의원들이 알고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좋을 것인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어느 의원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旅券課長님! 작년에 약 평균 월별 공공요금 납부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공공요금은 저희가 여권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두 가지하고 우편료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청사의 시설 구조상 여권과만 별도로 분리해서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전화요금만 얼마 정도 나갑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전화요금도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나는 모르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아니,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총무과에서 공공요금이 풀로 예산이 묶여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旅券課長 黃義振 아니죠.

○李東奎委員 그렇지 않아요? 대답만 해주는 것이지 관리는 여권과에서 하는 거고

○旅券課長 黃義振 아닙니다. 전체 청사 각 30개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은 전부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여권과에서 쓴 전화요금 납부실적을 보려면 총무과에서 떼야 되겠네요.

○旅券課長 黃義振 저희들이 국고 예산집행 현황을 결산할 적에 별도로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을 산술적으로 총무과와 상의해서 산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만들어 있지 않은데 내일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주실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월별 얼마나 됐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旅券課長 黃義振 저희들이 10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평균 5만원씩 하면 50만원 정도

○李東奎委員 전년도에 약 50만원 정도요? 그러면 '98년도가 그렇고 '99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旅券課長 黃義振 '99년도가 조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왜 많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여권 발급량과 민원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여권 발급량과 민원량이 많으면 오히려 일이 많으니까 전화하는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旅券課長 黃義振 저희들이 여권발급 서류를 신청한 분들에게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하는 직원들이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가지고

○李東奎委員 제가 확인 다 해 가지고 만약에 사적으로 쓴 것하고 공적으로 쓴 것하고 분류해서 내면 과장님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旅券課長 黃義振 저희 직원들이 사적으로 전화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권과가 지금 사적으로 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旅券課長 黃義振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여권과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일부러 과장님 보러 가는 척하면서 몇 번 봤어요. 사적인 전화를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旅券課長 黃義振 저희들이 일반여권에 관한 한 외교통상부에서 일반여권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접수한 여권을 신청한 분들이 이 진행상황을 묻습니다. 여권이 언제 되느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까지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들이 거의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대답을 하기 위한 전화통화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적인 전화를 하기 위해서 내부에 공중전화를 하나 설치해 놔습니다. 밖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적인 전화를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 시에 사적인 전화는 자기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중전화를 이용하도록 적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 4층에 있다는 것하고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사적인 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자료가 힘들면 내일 아침까지 주시 되 '98, '99 집행내역을 주시고, '98 중에 한달 것과 '99 중에 아무 달이나 관계없습니다. '98, '99 한달 통화내역을 같이 붙여서 주실 수 있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통화내역서는 저희들이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대로

○李東奎委員 우리가 총 통화한 것을 한 달이 분량이 많으면 1일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내역서하고 같이 붙여주실 수 있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화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이쪽 번호에서 저쪽 번호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때문에 전화국에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개인 전화번호가 있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여권과에 있는 것은 터미널로 들어오는 공통전화번호입니다. 10개가 있어요 그 10개 어떤 전화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통신실에서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는 통제가 됩니다. 다만 시내전화만 하는데 그 시내전화에 어떤 번호하고 했는지 그것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요금관계를 보시면

○李東奎委員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여권과가 들어오면서 계속 전화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그 여권을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합니다. 여권이 됐느냐 안됐느냐 보통 때는 2,3일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얘기해서 자동ARS시스템을 해달라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여권과를 개설하고 나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제발 전화하지 말고 ARS로 확인해라, 외교통상부에. 당신이 여권번호를 누르면 '언제 나온다' '지금 진행 중이다'가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우리가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대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한 달이 힘들면 1일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시간이 걸리더라도

○李東奎委員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화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98, '99 전화요금 납부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통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旅券課長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旅券課長 黃義振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주셔야 됩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時02分 會議中止)

(18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아까 우리 金正大委員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예산편성표에 보면 엄연히 골프 수강료하고 스쿼시 수강료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하반기에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사업비 전용을 한 겁니다. 같은 목에 항목이 맞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득이하게 쓰여질 항목 같은데 쓴다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문제였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무 자르듯이 써 버리면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죠. 이것이 생활체육종목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같은 생활체육 범위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때는 불링을 했었는데 우리 여건상 불링장이 없다 할 때는 그 불링을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편성된 금액 중에서 예산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강사료로 3,755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947만 3,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까 얼핏 金天號 係長한테 물으니가 국비가 천칠백 얼마가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나왔으면 엄연히 여기에 삽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지 어떻게 주머니 돈을 쓰듯이 써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특히 골프 같은 것은 고급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이 자세한 내역을 690만원, 4월과 6월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洪起瑞委員 720만원이 있고 690만원 하면 1,410만원이에요. '98년도에 720만원 쓴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만 5년째입니다. 지금 계속 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민행정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골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예'자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한 거예요. 스쿼시도 마찬가지로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생활체육 지원금으로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에 타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시하고 골프하고

○洪起瑞委員 지원금이 나왔다 해서 예산편성도 없이 합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나왔다 해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지 어떻게 체육에 쓰는 것은 막 써버려도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다만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종목이 아니라 신규종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7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 취미교실 강사료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스쿼시하고 골프를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것을 동 취미교실 강사료로 집행을 했다 이거죠?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잘못됐지, 자치센터 해 가지고 감사료 받으면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金正大委員님! 동 주민 자치센터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동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든가 전면 시행되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그런 것을 골프 배우라고 줬다면 서울시)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죠. 현재 동의 취미 교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누구는 돈을 받고 배우게 하고 누구는 골프를 공짜로 배우게 하고 말아야)

○洪起瑞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숨어있는 예산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숨겨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디다. 이런 조그만 것 대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지 이런 고급스런 골프나 스쿼시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 쪽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50명 있는 곳에 720만원씩 투자를 하고 쏟아 붓는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무슨 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사회진흥과죠.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금년에도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금년도 1월달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별로는 안 넣었습니다.

(○金正大委員 議席에서 - 또 스물스물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아니죠.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20분이 되었습니다. 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5분만 할게요. 2분 할 테니까 3분은 답변하세요. 통반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통장이 오류십명 반쯤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119페이지를 보면 통반장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100명 내외로 분명히 줄었을 텐데 반이 줄었고 그런데 어떻게 신문값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나 일률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1,800만원씩이나 나가고 지역신문은 476만 8,000원씩 나갔어요. 이게 어째서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면 통장 관등지가 몇개월인데도 신문은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일부 그런 것도 있고

○金正大委員 일부 하지 말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통반장이 전체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金正大委員 전체가 받든 안 받든 처음부터 안줬던 사람은 안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100명이 줄었다고 하면 100명에 대한 것은 예산 집행 내역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800만원씩이다 일률적으로 476만원씩이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과로 이렇게 줄었으니까 알아서 신문대를 덜 줘라 연락을 안 해줬던가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통장이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한테

○金正大委員 그러면 앞으로 통반장이 200명이 줄어도 이대로 나가야 된다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아니죠. 전체 인원이 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산이 줄어나가겠죠. 그런데

○金正大委員 예산을 덜 써야죠.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잘했다고 하지 말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일부는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보니까 통장이 바뀌

었는데 새로운 통장에게 안 나가고 전에 있는 통장한테 나가는 이런 일이

○**金正大委員** 이게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월 800만원씩 매월 사백얼마씩 나갔다는 것은 '99년 1년 동안에 신문 대금 지불이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1원도. 내가 뭐 일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저희들이 절대 인원이 다 나간다면 통장님 10분이면 10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과에서 일일이 통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金正大委員**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할게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분을 계속 찾아요. 두 분을 신문을 안 찾아요. 그런데 네 분 중에서 한 명이 구조조정 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가 없어진 걸 안 찾던 분을 찾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통장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金正大委員**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통장들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알게 때문에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을 받은 통장에게 전달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그래서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아까 우리 金周會 課長님이 약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완전히 노루 뒷다리 그냥 내미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쓰다가 저 사람은 이사를 갔으면 안 쥐도 되겠다 하면 20명분이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76만 8,000원씩 나갔다는 데 대해서 끝이 끝대로 맞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쫓아다녀 볼까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해가지고 다만 몇백원이라도 몇원이라

도 남아야지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시다. 잘못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 지역 생활체육교실과 관련지어서 골프나 게이트볼, 스쿼시에 대한 예산을 165쪽부터 취미교실 편성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67쪽, 168쪽과 169쪽에 대한 각 동 여가생활교실 현황을 보면 이 예산 집행 내역이 바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 지역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은 洪起瑞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구 지역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이 내용은 실제로 골프나 스쿼시나 제한된 사람만이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후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편성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98년도에 지출된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중에서 과다하게 제한된 사람 많이 이용하는 체육교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과 정책보조금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저는 보조금 지급내역 187쪽을 보면 세번째 한배달이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한배달 사단법인 단체는 지난번에 인사동에서 육의전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된 경비 일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 이러한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安載弘委員**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은 사실 선정이나 집행 또는 예산의 지원, 그 다음에 예산의

정산, 예산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단체의 목적과 필요성 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조를 해야 할 것이고 자립이 가능한 단체, 예를 들자면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라든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라든지 낙원동발전협의회라든지 국악로문화보존회 등은 일반적으로 봐서 이 분들의 구성 및 면면을 볼 때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립이 가능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해서 또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라도 자립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자로 4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1/4분기, 2/4분기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고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은 애시당초에 최초로 자금을 가져올 때 그 이유가 구민회관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27억이라는 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지방채 40억을 발행한 의미가 희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쓸 계획은 없는지 그러한 조기 상환 계획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죄송합니다. 조기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5년 거치라고 하는 약정으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저도 安載弘委員님처럼 우리 시에서 빌려오는 지방채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安載弘委員 국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40억 자금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예요. 그 이자의 코스트가 시에서 2%인가 3%인가 이자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5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기 상환하죠. 어차피 그 예산이 남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예

산의 소위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서울시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워서 구태여 예산을 우리가 못 쓰면서 이자를 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빼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의 재투자금은 3%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그보다는 예치이율이 많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돈을 써야 하더라도 득이 되는 거고 다만 우리 행자부에서 그런 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기 상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말이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50억 기금은 적어도 5년 거치 10년은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속한 상환이 가능한가요?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安載弘委員 실제로 재정투융자기금은 이자율이 보고서에 의하면 7.25%로 되어 있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이자가 7%인데 3%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놔서 세외 수입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예산이 이월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면 기획예산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조속한 상환을 하는 것도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安載弘委員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5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순수하게 식당만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순수하게 식당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적자입니다.

○李東奎委員 적자죠? 그 부분을 대기업에서 요새 식당에 손을 대고 있거든요. 많은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품질에서는 서비스가 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런 예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 직원들 사기도 양양시킬 겸 해서 구내식당을 그런 대기업에다 분양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그것이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도 많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침에 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단체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업체에 줬을 때는 그런 게 어렵고 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적자를 어디서 충당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지 자판기하고 구내매점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판기에서 얻어지는 순이익금을 약 1년이면 7천여 만원이 넘습니다. 얻어지는 이득금을 거기에서 남는 금액하고 구내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약 2,700 2,800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겨우 충당을 해나가는 데 그러면서도 요새 직원들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품질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봐요. 그 예를 내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갔는데 거기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그 단체에서 식사 제공을 시켜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봤는데 거기를 대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모 그룹에서 와가지고 식사 제

공을 하더라구요. 대단히 서비스가 좋아요. 영양 분석 다 해가지고 아주 한 사람 개개인마다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단가가 먹는 게 1인당 개인이 1,200원 정도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800원 받죠?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1,300원입니다.

○李東奎委員 지난번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1,800원을 받는데 서비스의 질이 이것보다 낮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00원 받아가요. 개인한테 1,200원을 받아가면서 서비스의 질이 나운데 왜 우리가 구태여 적자를 봐가면서 이런 운영을 하고 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식사 제공도 하고 공급도 하고 한다지만 그것은 하고도 남을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굳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작년에 이게 논의가 되어서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태, 어디 롯데, 캐더린 등에서 많이 여론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캐더린에서 들어오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가격을 올렸을 때 불이익을 본다는 게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고 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李東奎委員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불리하지 만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41쪽에 나와있는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최초로 물었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효자동사랑방에 대해서 분양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꼭 없다는 개념보다는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꿔주면 아마 우리 종로구가 상당한 이익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나가면 예산편성 잡는데 막 짜고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다른 타지역의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지금 말이죠 우리 직원들 사기 살려줘 가지고 급여금도 더 주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만큼 이렇게 경쟁해 가면서 말다툼해 가면서 하는 데가 드물 거예요.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가신다는 생각만 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東奎委員의 말씀에 생각이 나는데 종로1,2,3,4,5,6가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은 1,800원인데 동직원들은 2,400원의 돈을 내고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싸게 먹느냐 했더니 인건비 지원해주던 것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되었다고 이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예산 배정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구청에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1,800원으로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돈을 내고서 먹는다는 것도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李東奎委員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위임을 하는 방향도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우왕좌왕 청진동 바닥을 헤매고 다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락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앞으로 우리도 도시락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나가 지 말고 여기에서 먹는 방법, 이 근처의 음식점은 나 때려죽이려고 덤벼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 종결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말씀하십시오.

○安載弘委員 마지막입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이틀하고 오늘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질문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자료의 통계를 통일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와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년초에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취학아동의 동별 현황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검정초등학교에서 반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명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은 357명으로 보고해줬는데 실제로 세검정초등학교와 상명여대부속초등학교에 취학한 학생 아동수는 293명이었습니다. 357명이 통보가 되었는데 실제로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320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한번 불러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감사자료 모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가 정확해야만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현상을 파악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통계 숫자를 통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사회진흥과 지금은 문화진흥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와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편안히 가실 수 있음에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받는 일들이 수월해질 수 있고 보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통계가 쉽게 알아보고 정확하다면 모든 일들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적어도 소관업무에 근무하고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좀더 소관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본청 직원의 능력의 60%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기초통계 자료를 뽑아준다고 하면 그러한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치행정발전추진협의회처럼 무슨 기획팀인가 있다는 걸로 태스크포스(task-force)의 기획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구청 안에 만들어서 각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들이 제출하는 제안이나 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예산이 종로구에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추나 또는 제안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계획이 있으면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양양하시고 스스로가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진보할 수가 없다는 게 요즘의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셔서 통계숫자의 통일과 자료의 일목요연한 정리라든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인지, 그 다음에 행정 개혁을 위한 스스로의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준 관련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吳炳漢 行政管理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時46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總務課長 李炳滿
 企劃豫算課長 金周會
 民願奉仕課長 趙秀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券課長 黃義振

